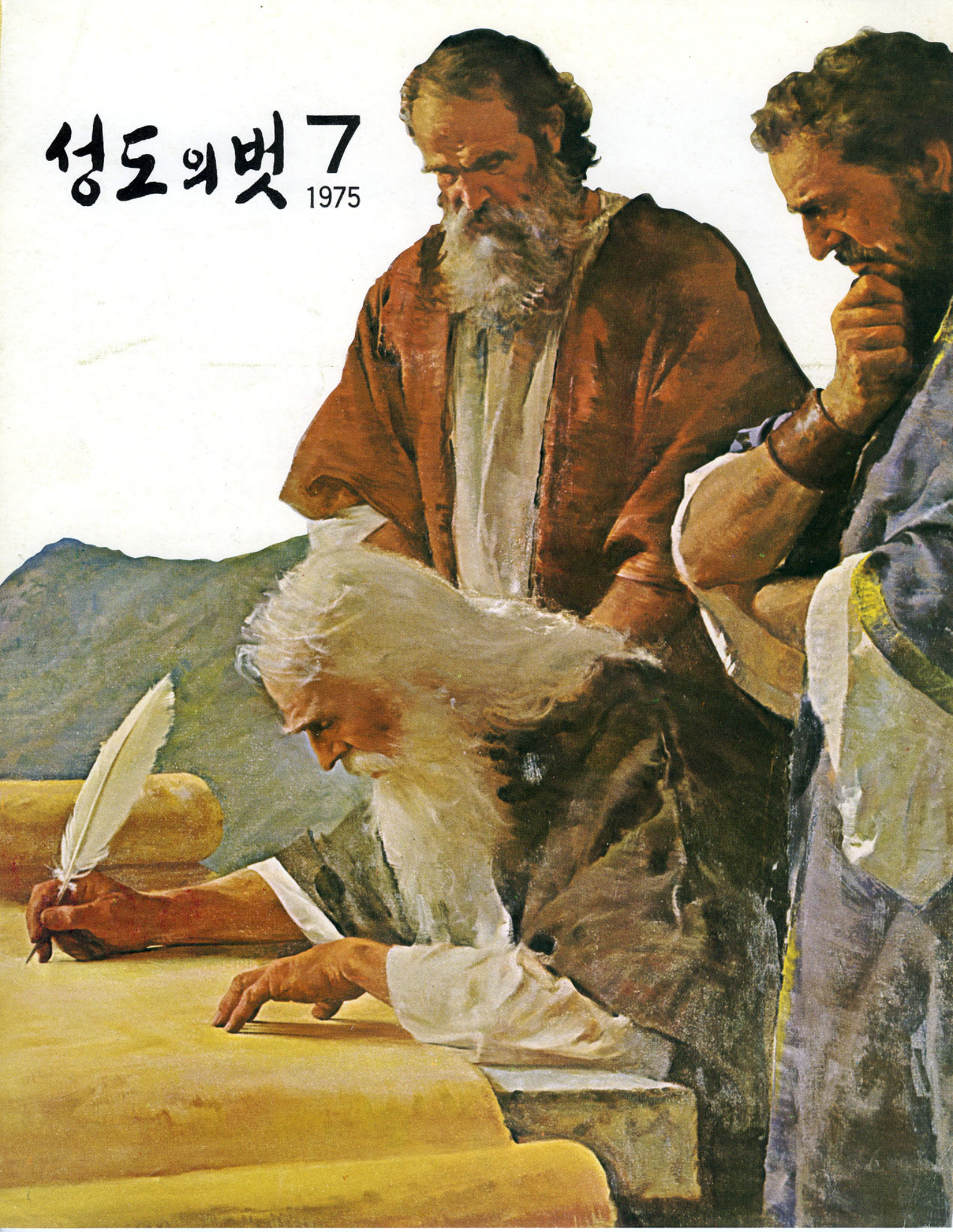


성도의 빛 7

1975



영감의 메시지

자녀를 가르침

엔 엘튼 태너

영 “우리는 미래에 역원, 교사, 선교사,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지역 대표, 총관리 역원이 될 하나님의 영의 자녀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와 국가에서 중책을 맡고 일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막

중한 책임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을 그들에게 안겨 줄 일들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자녀를 행복하고 원만히 성인으로 성장시키려면, 그들이 스스로 달성할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런 공적도 남기지 못하고 인생을 목표 없이 방황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는 지도를 받아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어린이가 자신에게는 물론, 사회에 크게 공헌하기 위해서 개발해야 할 각기 다른 태도와 기술을 발견하는 데는 오랜 인내와 이해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꾸준히 귀담아 듣고 그들의 심중의 뜻과 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 놓고 감싸 주며,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



월간

성도의 벗

제11권 제7호
1975년 7월호

이며, 이해했다는 뜻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방해가 되지 않게 질문을 던지고, 그와 그의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등 몇 가지 간단한 접근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실로 어린이를 알게 되고 그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그의 임무를 알도록 돕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훈련이란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모범으로 보이지 않고서는 훈련하기가 어렵습니다...자녀에게 사랑을 보이고 가르치며 정직하고 영예롭게 되는 의로운 시민이 되도록 훈련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부모나 교사가 자녀에게 바라는 바를 모범으로 보이는 일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주일학교 대회, 1973년 10월 5일)

순서

- 1. 자녀를 가르친 엔 엘돈 태너
- 2. 해류와 가정의 영향력 스펜서 더블류 김볼
- 6. 발견 풀 알 치스맨
- 9. 와싱턴 신전 헌납 기도문
- 13. 물몬일지
- 14. 이사가가 전한 말씀을 이해하는 열가지 열쇠 브르스 알 맥콩키
- 21. 심심풀이
- 22. 도미꼬의 친구 폴리 레만
- 25. 친구가 친구에게
- 26. 별의 축제 마가렛트 나이트 홀취
- 29. 질의 응답
- 30.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에스 딜워스 영
- 33. 진복팔단 오 레스리 스톤
- 36.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 빅터 엘 브라운
- 39. 화평이 가져다 주는 축복 프랭크린 디 리차즈
- 41. 우리는 의로움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렉스 디 피네가
- 44. 그리스도를 증거함 조셉 앤더슨
- 46. 선교부장단 메시지 박 재 암
- 47. 내외소식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5년 7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120호
발행인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4-6832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수
정가
1권 150원
1년분(송료포함) 국내 1,200원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 7불
필리핀, 태국 9불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14불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근동아시아 18불
선박 3불



해류와 가정의 영향력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는
강력한 영향력이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나는 가끔 훌륭한 집안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반항하며 의의 길을 이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우는 예를 보아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모범을 가르치고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부모에게 슬픔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나는 이처럼 수년간을 방황하고 헤매다가는 마침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큰 공헌을 하게 되는 사람의 예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그들이 온갖 역풍을 받고 고생을 하게 되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은 그들이 자라온 가정이라는 생활의 해류에 의해서 그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후에 그들이 어린 시절에 즐겼던 분위기를 그들의 가정에 다시 재현하고 싶다고 느낄 때 그들은 부모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신앙 생활로 되돌아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의로운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항상 옳은 길에 잡아 둘 수 있는 보장책은 없으나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그들을 잃게 마련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곧고 좁은 길”로 이끌지 못한다면 유혹의 파도나 바람과 악이 그들을 바른 길에서 이탈시켜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자녀에게 건전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로운 부모는 마지막 날에 흠없이 심판대에 서게 되며, 전부는 아니라도 자녀를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사이야는 우리 영혼의 싸움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무릇 육으로 난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적이요,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주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 아이 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하지 아니할진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적이 되리라.” (모사이야서 3:19)

“육으로 난 인간”이란 자신의 영적인 속성을 가볍게 보고 동물적인 욕정에 쉽사리 굴복해 버리는 인간을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종교에 반대되는 끊임없는 선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 어떻게 자녀들을 교회에 붙잡아 두고 신앙을 잃지 않게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은 매우 신중하게 자녀들을 가정에서 교육시켜 그들이 선악을 가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학교에 가도 항상 듣는 무신론적 철학으로 미혹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믿으며 신앙을 갖고 충실히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생적이고 성실한 부모를 축복해 주십니다.

함께 영원히 살아 간다는 개인적인 결의를 다짐할 수 있는 안정된 결혼이 시작입니다. 것처럼 건전한 기초를 가진 우리의 자녀들은 평화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현대의 분석가들은 급변하는 세계에서 인간은 지속성을 잃게 되는 것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이와 같은 유동성은 우리의 자녀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거나 조부모, 삼촌, 아주머니, 가까운 이웃 등의 관계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해 줍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들은 영원히 함께 속하고 있으며, 가정 밖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 가운데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기본적인 유대가 있다는 느낌을 가족들에게 심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친척들과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신을 교환하며, 방문하고, 친족 활동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안고 그들이 영원히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 기쁘다고 말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되시는 분은 단지 상대를 기쁘게 해 주기 위해서 값이 비싸지는 않으나 놀라운 선물감을 사다가 준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장미를 사 가셨거나, 집에서 특별한 음식을 요리했거나, 생활을 보다 훈훈하고 사랑이 깃들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전축 기금 모금이나 적십자 기금 모금 운동에 협조하시거나 토요일 저녁 한때를 미망인 가정 돕기 운동에 참여하실 계획이라면 이 사실을 자녀에게도 알리시고, 가능하다면 그들도 결정하는 데 참여시키고 내려진 결정에 실시되는 일에도 참여시키십시오. 가족이 모두 가족 중 한 명의 침례, 확인, 안수 등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축구팀에 든 아들을 응원하려 게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가정의 밤, 식사 시간, 가족 기도에

연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처음으로 빙산을 보았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937년 나는 김볼 자매와 함께 처음으로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기선을 타고 세인트 로렌스 강을 지나 북대서양을 거쳐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행을 하였습니다.

내가 대양 한 가운데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는 일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빙산을 본 것입니다. 승객이 모두 두 빙산을 보기 위해 갑판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검푸른 바다와 푸른 창공에 위용을 드러낸 빙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빙산은 험준한 산에 우뚝 솟은 봉우리라도 같이 조용히 물에 떠있어 보기에는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그 때까지 빙산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들었지만 처음으로 험준한 얼음산을 눈 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빙산을 보자 나는 대서양 처녀 항해 중 침몰된 타이탄호가 생각났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저녁 늦게 거대한 빙산이 새로 건조된 대형 기선을 침몰시킨 것입니다. 대부분 영국과 미국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첫 승객 중 1503명이 배가 침몰할 때 물에 빠져 사망하였으며, 703명만이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4년 전에 우리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상에서 그린란드를 지나면서 다시 큰 빙산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구름 위에서 보았으나 우리가 그린란드를 지날 때에는 날씨가 개여서 하늘에는 구름이 한 점도 없었습니다. 태양이 눈부시게 내리 비쳤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장관은 좀처럼 보기 힘든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눈 아래 수천 미터 두

께의 거대한 둥근 빙산이 떠있었습니다. 우리는 두꺼운 얼음 덩어리가 계곡을 흘러 내려와 부서져서 얼음 조각이 되어서 바다로 떠내려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해안은 바다로 떠내려 가는 얼음 덩어리로 가득 찼습니다. 33년 전에 우리가 본 빙산의 본 고장이 여기였습니다.

그리인란드 빙산의 얼음 조각들은 대체로 정해진 코스로 흘러 내려 갑니다. 래브라도오 해류가 끊임없이 배핀단과 데이비스 해협을 지나 남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있어도 이 얼음산을 안고 갑니다. 해류는 지상의 바람보다도 그 방향을 바꾸는데 훨씬 힘이 듭니다.

우리는 의로운 부모의 가르침에 의해서 가정에서 정리되고 발전된 우리 생활의 조류가 파도가 들끓는 세상의 모든 풍파나 악영향을 이기고 자녀가 가야 할 방향을 이끌어 줄 때 우리 생활에 오는 결과를 세상적인 힘의 투쟁과 비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대양의 파도 아래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놀라운 힘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그와 비슷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큰 미시시피강도 대양의 해류에 비하면 한낱 작은 시내에 불과합니다. 해류 중에서도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래브라도오 해류입니다. 두 번째로 큰 것이 멕시코 만류로, 이 해류는 미국 동부 해안과 평행하게 있는 멕시코만의 동부에서 더운 해류를 끌고 대서양을 건너 유럽 해안까지 날라 줍니다. 멕시코 만류는 미시시피강의 1,000배나 되는 물을 운반합니다. 래브라도오 해류는 매년 그린란드로부터 멕시코 만류가 흐르는 곳까지 수천 개의 빙산을 날라

줍니다. 타이탄호가 침몰한 곳도 바로 래브라도오 해류와 멕시코 만류가 마주치는 곳이었습니다.

빙산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부분적으로만 눈에 띄는 힘에 의해 진로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빙산이라기 보다는 배에 좀더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동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고, 우리가 해류를 알아 보면 그 이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의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흐르는 해류를 만든다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은 고난, 실망, 유혹 등의 역풍에도 이겨 내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과 성인들이 심한 풍파에 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하고도 생각해 봅니다. 유행의 바람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불어 닦칩니다. 성적인 유혹의 바람은 이에 빠진 사람의 결혼 생활을 망치고 밝은 앞날을 망치고 밝은 앞날을 흐리게 하며 그를 타락하게 합니다. 습관성 약, 신성 모독, 외설의 수렁에 빠진 나쁜 친구들은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강력하게 꾸준히 인도되지 않을 때 우리를 실족시켜 버립니다. 우리 삶의 해류는 부모나 가정 생활을 통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깨끗하고 성스럽고 진실되고 힘차며 세상의 힘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아브라함서 3:22 참조)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인간의 독특한 존엄성을 느끼게 됩니다.

정규적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십일조 헌금에 참여하여 교훈과 모범으로 아름다운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은 특별한 경우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모두가 주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 정규적으로 갖는 진지한 기도입니다. 그저 기도만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족의 복리를 위해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밝혀 주신다는 신앙을 갖고 기도하는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를 보려고 어린 자녀가 눈을 뜨고 살폈다는 이야기처럼 기도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학업 때문에 멀리 다른 지방으로 가거나 아내가 긴장감으로 고생하거나, 가족 중에 누가 결혼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인도를 간구할 때가 장은 축복사로서의 책임을 갖고 이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버지가 부재 중일 때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자녀에게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부여된 신권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의로움 가운데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빙산과 다른 중요한 이 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배처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자신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류의 흐름을 안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미에서 대서양

연안 항구로 가는 크고 많은 기름 탱크나 유조선은 항공기가 공중의 제트 기류를 타듯이 멕시코 만류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류와 싸우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해류는 어쩔 수 없이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게 됩니다.

피어리 제독이 북극을 여행할 때 그는 섬과 같은 빙산 위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가 개를 데리고 북쪽을 향해 달리고 있을 때에도 그 빙산은 해류에 의해서 더 빠른 속도로 그를 남쪽으로 싣고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특별한 안식처이며, 가정과 가족은 우리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회를 통해 가정 생활, 가족 생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부모와 자녀에 관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계획하신 방법입니다.

연 사흘간 깊은 생각을 갖게 한 본 대회를 마치면서 우리는 본 대회를 통해 훌륭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많은 지식과 영감을 불러 넣어 주신 여러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도 대회의 문을 닫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가정으로 갖고 갑시다. 이 말씀을 가족에게 전하고, 성찬식 때 보고 합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족에게 전하고, 여러분이 받은 유익한 영감이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준 결심을 그들에게 전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다 훌륭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합시다.

대회를 마치면서 우리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축복도 드

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가 종사하는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 거리를 여행해 와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배블리 먹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살아 계시며, 아담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 요단 강쪽에 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고 하시며 세상이 모두 의지해야 할 아들을 세상에 소개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우리가 경배하고, 변형의 산에 나타나서,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약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힘써 온 종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다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17:5)고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압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뉴욕주에 나타나셔서 니과이인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오랫동안 암흑 속에서 떠내려 가던 세상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2서:17)고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나는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리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가르칩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주님이 주신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하고 실천한다면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대서양 횡단 : 새로운 사실

폴 알 치스맨

엠티 “나는 이러한 분야의 연구 내용이 더 이상 공개 석상에서 토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단적인 거부 풍조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아프리카, 지중해, 동양 사람들이 컬럼버스 이전에 대양을 횡단했으리라는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1973년 조지아주 럼프킨에서 있었던 “컬럼버스 이전의 대서양 횡단”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조셉 메이헌 박사가 한 말씀입니다.

브리감 영 대학의 네 교수인 몬트 나이만, 로버트 파슨스, 로스 크리스찬슨과 함께 나는 미국 전역에서 온 25명의 학자가 1830년대에 물문경이 세상에 말한 내용 즉 미대륙의 인디안은 구세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고대 이주민의 후예라는 사실을 토론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3일간 계속된 세미나에서는 고대의 동전, 철제품, 돌이나 금속판에 새겨진 글 등을 포함해서 컬럼버스 이전의 대서양 횡단을 증거해 주는 많은 자료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물문경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세 가지 결론이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얻어졌습니다.

첫째가 고대 미대륙의 원주민은 글을 읽고 살 수 있었으며, 실제로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세미나에서 토론된 중요한 출토품의 하나가 “현 판”입니다. 웨스트 조지아 대학 고대사 교수인 와인론 홈즈 박사는 1933년 조지아의 한 정원에서 발견된 작은 납 연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곳에 새겨진 글자는 슈메리안키니폼이란 형태의 글자로, 내용을 번역한 결과 양의 거래를 다룬 것으로 밝혀졌

습니다. 그 내용보다는 북미 대륙에서 발견된 금속판에 고대의 기록이 실려 있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심포지움의 주최자였던 메이헌 박사와 맨프렛 메트칼프 교수는 1966년 조지아주 포트 베닝에서 발견된 “메트칼프석”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돌에는 기원전 1400년경 근동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글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9"×8" 크기의 돌의 글자는 아직도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온 유명한 고고학자인 사이러스 고든 박사는 “베트 크리스 돌”에 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1880년대에 테네시주에서 발견된 이 돌에는 100년경에 새겨 넣은 로마—지중해 근처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히브리 글자가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얻은 두 번째의 결론으로 물문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을 끌게 해 주는 점은 컬럼버스 이전의 미대륙 원주민이 철제품을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초기의 미대륙 원주민은 철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문경은 철제품의 제조와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커스버트에 있는 앤드류 대학 문리과 대학 학장인 더글러스 티 홀덴 박사는 미국에서 발견된 금속 제품에 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홀덴 박사는 테네시주 최고 법원 대법관인 존 헤이우드씨의 놀라운 발견 업적에 관해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헤이우드씨는…그들 [체로키이족의 인디안]의 구전이 동방에서 온 사람, 바벨탑의 이야기,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 등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 책을 갖다 주었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잊혀졌거나 분실된 사실과, 그 책을 준 하얀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헤이우드씨는 많은 금속 제품을 발견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를 끌 만한 것은 철제품이었

이 도끼와 도끼 머리와 비슷한 무기가 미대륙에서 초기에 철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거해준다.



입니다.”

다시 홀텐 박사는 미주우리주와 북캐롤라이나주에서 발견된 켈럼버스 이전의 철 도끼와 망치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침단 부분에 강철이 붙은 모루 (태장간에서 쇠를 붙일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이)와 손도끼가 발견되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고대 철제 난로가 발견되었고, 테네시주 파이에트빌에서는 켈럼버스 이전의 작은 쇠칼이 발견되었고, 켄터키주에서는 쇠팔지와 철제 손도끼가 발견되었는데 발굴된 것 중 네 가지는 뼈만 남은 여자의 왼쪽 팔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200년이 넘고 직경이 1.8미터가 되는 나무 한 가운데서 손도끼가 발견되었습니다.

홀텐 박사의 말에 따르면 사이러스 토마스라는 사람이 1880년에 그가 발견한 출토품에 관한 책을 출판하였는데, 여기에는 끌, 칼, 팔지 등을 포함해서 그가 발견한 기록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철제 장신구가 발견되었으며, 버지니아주에서는 쇠못, 대갈못, 좌철, °끌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물몬경을 번역할 때 쇠를 언급하였으나 그것은 현대에만 있었다고 주장하던 사람으로부터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배척당한 사실을 반증해 주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이 세미나의 세 번째 중요한 결론은 고대 미대륙의 원주민이 태평양은 물론 대서양을 횡단하여 구대륙에서 왔다는 사실이 위의 두 가지 결론과, 유대인과 북미 대륙 주민 사이를 맺어 주는 다른 여러 가지 흥미로운 관계로 더욱 분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홀츠 박사는 성구함(성경의 구절이 적힌 양피지 패를 넣은 작은 가죽 상자) 이 인디안들 사이에서 발견된 기록 두 가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한 상자 속에서는 모세서를 기록한 양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양피지는 매사추세츠 피츠필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구함

에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발췌하여 히브리어로 적은 양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1854년 캔자스주 레벤워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더글러스 시 브레이드웨이트 박사는 1803년 이후 북미 대륙에서 발견되는 로마와 히브리 동전 즉 북캐롤라이나, 조지아, 테네시, 미주우리, 오클라호마 등지에서 발견된 로마 동전과 켄터키주에서 발견된 수라구사(행 28:12 참조) 동전에 관한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야기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미 대륙의 선사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이 발견한 동전을 참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지중해 지역에서 사용되던 동전과 철제품의 발견은 켈럼버스 이전에 대서양을 횡단했다는 이론에 실질적인 증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세미나에서 브리감 영 대학교를 대표하여 몇 가지 사실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참석하신 사람들에게 물몬경을 알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고대 미대륙은 말한다”라는 제목의 초기 미대륙과 물몬경에 관한 영화를 상영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관심을 기울였으며, 교회에 관해서 많은 질문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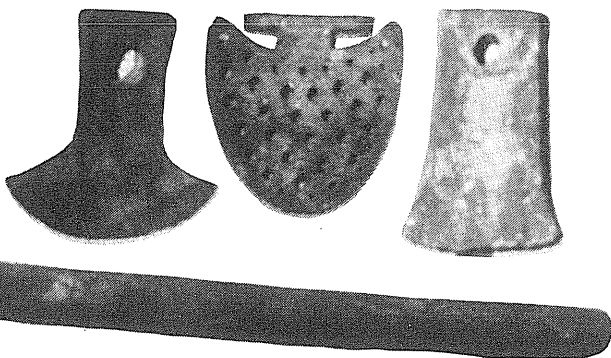
연구지, “매뉴스크립트”의 편집인인 폴 브이 루츠는 세미나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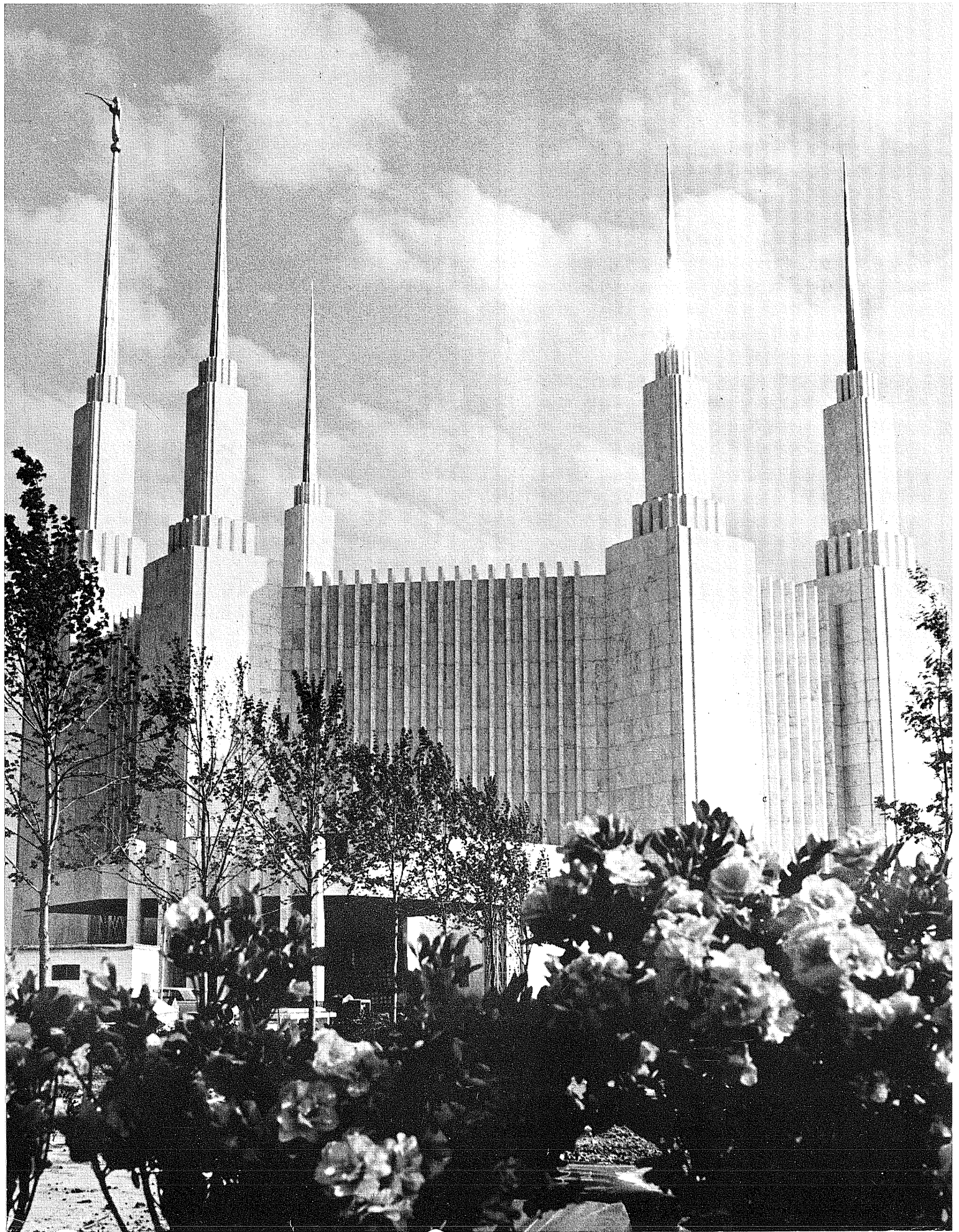
“세미나에서 토론된 증거 자료의 사실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었지만 것처럼 풍부한 증거 자료는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나도 세미나를 회상해 보면서 지난 10년 동안 켈럼버스 이전의 대서양 횡단이라는 논제에 관해 많은 과학자나 연구자들이 가진 견해가 달라진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세미나 결과 지금까지 물몬경에 대해 공격을 가해 오던 많은 사람이 이 고대의 기록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출토품이 바로 우리를 개종시키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갖게 하며 오늘날 세상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기록인 물몬경을 읽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게 해 줄 것입니다.

폴 알 치스맨 박사는 브리감 영 대학교 고대 경전 부교수로, 물몬경 연구소 소장직도 겸임하고 있다. 그는 현재 브리감 영 대학교 제7스태이크 부장이다.





와싱턴 신전

헌납 기도문

헌 미국 동부 전역과 동부 캐나다에서 온 40,000명에 달하는 교회 회원이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거행된 워싱턴 신전의 헌납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워싱턴 신전은 교회의 16번째 신전이 되었습니다. 열 차례에 걸쳐 거행된 헌납식에서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이 헌납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월 19일과 20일에 각각 세 차례씩, 21일과 22일에 각각 두 차례씩 모두 열 차례의 헌납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의식실, 예배당, 식당, 성회실을 비롯한 신전의 각 방에 들어 왔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감독으로부터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입장권을 받았습니다.

헌납 기도 이외에도 총관리 역원이 각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심이사도 보조인 엘마 소니 장로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밀튼 알 헌터 회장을 제외한 모든 총관리 역원이 헌납식에 참석하였습니다.

4일간 계속된 헌납식에서 그외에도 신전 건축자를 대표한 프레드 에이 마크햄 형제, 버지니아 오크튼 스테이크 부장이며 신전 지방부 위원회 위원장인 슈리안 시 로우 부장, 지역 대표인 로버트 더블류 바커 장로가 말씀을 맡았습니다.

신전 지역의 회원 80명으로 구성된 10개의 합창단이 각 모임에서 음악을 들려 주었습니다.

헌납식에 참석한 많은 타지역 방문자들은 워싱턴 지역 교회 회원의 숙소에서 민박을 하였습니다.

헌납식이 있는 후 일반에게 신전이 공개되었으며 7주 동안에 758,322명이 신전을 다녀 갔습니다.

헌납식이 끝난 후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신전의식이 신전장인 에드워드 이 드러리 이세의 지시를 받아 거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영과 천지와 그곳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우시며, 완전하신 자비와 사랑과 진리를 가지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모여 이 아름다운 건물을 헌납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독생자의 복음과 교회를 영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보장하는 영감에 찬 헌법을 가진 국가를 세워 주시고 이 땅을 그러한 사람들이 살 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한 당신의 백성의 회생으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신전을 당신께 바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독생자를 지상에 보내 주셔서 세상의 구세주로 삼으시고, 복음을 회복하시기 위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부름을 주시고 이름을 붙이신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주시고, 당신과 독생자가 몸소 예언자에게 나타나시고, 악을 물리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계시를 통해 세상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거룩하신 목적을 알 수 있게 지식을 회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요셉 스미스가 순교당하는 날까지,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대를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계시를 받아 왔으며, 이를 통해 신권, 사도의 직분, 신전 사업, 기타 참되고 완전한 복음의 모든 원리가 회복되었고, 거룩한 하늘 사자들이 인간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왕국의 열쇠와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인 몰몬경이 온갖 영화로운 진리와 함께 세상에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주의 언약을 알게 하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몰몬경 표제지)임을 알게 하도록 금판을 보존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 하오며 영광과 힘과 권세로 보좌에 앉으셔서 나날을 보살피시는 당신께 찬양을 드리나이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당신의 모든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 주신 과거의 모든 보살핌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당신의 프로그램을 따르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충실한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모두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는 악인들이 과거에 기근, 역병, 슬픔, 전쟁으로 벌을 받았음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당한 그 고초를 우리가 겪지 않게 기도드리나이다.

아버지시여,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악과 불경과 부패와 공해와 부도덕으로 크게 격정하고 있사오며, 평야 위에 세워진 도시가 파괴되고, 건물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적국의 종으로 잡혀 가게 되었던 오랜 옛날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상으로부터 인간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쓸어 버리기 위해서 홍수를 내려 보내셨던 일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제 사람들이 파멸의 종말로 이끄는 함정으로 맹목적으로 걸어 들어 가게 하는 소위 자유라고 하는 방종 생활에 탐닉하여 과거의 온갖 죄악이 우리 눈 앞에 전개되는 때를 직접 보게 되었나이다. 아버지시여, 그들을 축복하셔서 의로운 상태로 당신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는 전쟁과 파멸을 자초하려고 화약에 불을 붙이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 정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신께 비옵나니 국가의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의롭고 현명하게 통치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진리와 의로움 가운데서 당신을 경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를 파멸의 직전으로 몰아 가는 힘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모든 백성을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닌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지상에 있는 당신 왕국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뜻과 생각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들이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 올 영원한 세계에서 의로움을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당신 백성을 번성케 하시되 가축, 땅, 곡물, 재산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들이 이러한 거짓 신을 섬기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하 나이다.

아버지시여, 온 국민이 회개하고 당신을 따를 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멸망의 천사를 진정시켜 주시고 당신의 백성이 용서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회개하는 자들이 생활을 바꾸게 될 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당신 아들의 계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계명에 따라 실천하는 우리의 노력이 매우 보잘 것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필요한 희생을 하며, 우리의 아들이 의롭게 자라고 복음을 전세계에 전하기에 합당하도록 영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모든 나라가 문을 열고, 모든 왕, 대통령, 황제, 재상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 그들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세상의 많은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당신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선교사를 축복하셔서 세상에 당신의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 그들에게 대항할 자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시여, 특별히 해외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들들을 이 성스러운 사업에 바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하였거든 우리의 의무를 다시 살피게 하시고, 방해를 받거든 문을 열어 주시고 당신의 종이 그들의 간증으로 세상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과거의 자비로운 보살핌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의 신앙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크신 도움의 손길이 사막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해 주셨고, 노아와 그의 후손을 노한 바다에서 구해 주셨으며, 리하이의 가족을 황량한 사막과 망망 대해에서 이끌어 주셨고,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구해 주셨으며, 옥문을 열어 오늘날의 성도들이 대평원을 가로질러 산간 계곡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과 그외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사실로도 우리는 당신께서 잠긴 문을 여셔서 우리가 세상 사

람들에게 당신의 독생자가 제정하신 승영의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선교사가 진리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성공적으로 온갖 장애를 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레이먼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 가운데 있는 온갖 “다른 신”과 미신과 공포를 버리게 하시고 당신의 대업 안에서 강하게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성약을 알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해 영화롭게 되고 회개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에게 비옵나니 당신의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요셉 스미스로부터 해롤드 비 리 대관장에 이르기 까지 역대 대관장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들이 당신의 대업을 위해 이룩한 공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비옵나니 현 대관장을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마음과 뜻을 그와 그의 보좌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들이 영감받은 지도력으로 지상에서 당신의 프로그램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지혜, 판단력, 화평, 보호, 영감, 당신의 계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이사도들이 복음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합당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드리나이다. 그들에게도 당신의 거룩한 계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축복사, 십이사도 보조, 칠십인 제일 정원회, 판리 감독단, 십이사도 지역 대표, 스테이크와 선교부 지도자, 와드와 지부 지도자, 교회 교육 기구나 보조 조직, 기타 당신의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께 비옵나니 이 신전을 관리할 신전장단과 이곳에서 일할 자매 책임자와 그의 역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그들이 성스러운 분위기를 이루어 모든 의식을 영적으로 집행하고 모든 사람이 이곳에 오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물의 곳곳을 보살피는 수위와 야경원과 모든 종사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당신의 아들이 영의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는 무수한 영들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감

사드립니다.

이 신전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천사가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 요셉 스미스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벨기세택 신권과 사도의 직분을 부여하시고 이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지상에 다시 보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형제인 유다의 자손들을 지켜 보았나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해와 고난을 보았으며, 그들이 복음을 믿고 당신의 아들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일게 될 날이 빨리 오기를 간구하였나이다.

인봉, 결혼, 기름 부음, 기타 의식을 받기 위해 이 신전에 오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이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영광의 집, 영원한 결혼의 집, 인봉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게 축복하시고, 이곳에서 살아있는 자는 무수한 죽은 자를 위하여 모든 구원 의식을 집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지 못해 이곳을 더럽힐 자는 이곳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거짓말을 하고 당신의 종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모든 자를 혼란케 하셔서 그들의 파괴적인 사업을 좌절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온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땅에 세워진 이 위대한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의회와 사법부, 내각, 의회 의원, 관리들을 축복하셔서 자유가 이 땅의 기초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노력하는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당신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은 하늘 보좌에 앉으사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과 권세와 통치와 진리와 정의와 심판과 자비와 온전하신 무한하심이 영원무궁토록 살아오나이다.”(교성 109 : 77)

위대하시고 친절하신 아버지시여, 이 집을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집을 당신의 성스럽고 의로운 목적을 위해 당신께 바치며 이 집에 당신의 이름을 부칩니다. 당신과 아들에게 호산나 찬송드리고, 당신의 기름 부은 자가 구원을 입고, 당신의 성도가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당신의 종의 솜씨로 세워진 이 집을

당신이 영원히 거할 집으로 받아들이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건물을 기초부터 관석까지 온전히 받아 주시고 이를 성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에서부터 모로나이 천사가 서 있는 첩탐에 이르기까지 당신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벽을 축복하셔서 썩지 않게 하시고 마루, 지붕, 다리, 엘리베이터, 계단 등 모든 부분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명과 난방 시설, 보일러, 발전기, 연결 파이프, 전선, 램프, 가구, 기타 온갖 부품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일, 제단, 커튼, 양탄자, 침례반, 황소 받침, 금고, 지하실, 장부, 문서 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구, 의자, 방적, 옷걸이, 장농, 장식품을 포함한 기구와 나무와 쇠로 된 모든 작품, 수공품, 그림, 조각, 실크, 울 면제품 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리 그릇, 자기, 기타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겸손히 당신께 바치오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당신의 종과 여종이 축복과 의식을 받을 제단을 바치오니, 이것이 성스럽게 보존되기를 비옵나이다.

건물과 함께 건물이 선 땅과 보도와 울타리와 정원, 나무, 꽃 등을 바칩니다. 이 모든 식물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 이 길목이 화평과 안식과 명상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건물과 온갖 시설을 화재, 홍수로부터 지켜 주시고 천둥과 폭풍우와 지진과 기타 온갖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당신의 충성스럽고 사랑에 찬 백성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교성 7 : 3 참조)의 민족에게 찬양드리고, 그들이 당신과 하나님의 양 앞에서 높은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계 7 : 10)라고 외치며, 다시 우리가 모두 한 음성으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노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세세토록 있을찌로다”(계 7 : 12 참조)라고 외치게 하소서.

이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신권의 권세로써 우리는 이 건물과 이에 부속된 모든 것을 거룩하신 아버지인 당신께 바치오며 당신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당신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몰몬일지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대로 사는 매일의 생활에서 얻는 갖가지 경험은 모든 말일성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모두가 다 그러한 체험담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은 일, 신권의 축복,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받은 영감, 교회 일을 하면서 받은 뜻깊은 보상 등 여러분의 간증을 더욱 굳게 해 준 체험담이 있으면 교회의 다른 여러 회원들에게 들려 줍시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번역 출판부 성도의 벗 담당자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몰몬경은 나에게 글 읽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마 데 맥켄나, 칠레

형 “자매님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어요!”
나는 놀라와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있는 잔주름이 큰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켈프 지부에서 있었던 상호부조회 만찬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메디나 자매님...”하고 나는 머뭇거렸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래요 전 아무도 그런 걸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부끄러웠지요” 하고 그녀가 대답하였습니다.

안나 데 메디나 자매는 나이가 드신 다정한 자매로, 심장병 때문에 항상 가쁜 숨을 내쉬면서 교회에 오곤 하였습니다. 그녀는 미망인으로, 자녀들은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혼자서 버스를 타고 교회에 오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메디나 자매님, 왜 전에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저라도 맥에 가서 가르쳐 드릴 수 있었을텐데요.”

“자매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으로 몰몬경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성실하게 상호부조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나는 영적인 생활 공과를 맡은 교사였기 때문에 가끔 그녀에게 성구를 읽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미안합니다만 읽을 수가 없는데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시력이 나쁘거나 안경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읽을 수가 없다고 하는 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님은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딸에게는 별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가사 일만을 가르치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자매님의 집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그녀는 그들의 말을 주의깊게 들었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옳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집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그들이 두고 간 소책자를 딸에게 부탁하여 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했으며, 선교사들 역시 그녀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말과 뜻을 암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마침내 몰몬경에 관해서 이야기할 날이 왔고 선교사는 그녀에게 몰몬경을 한 권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에게 교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값진 진주라도 받듯이 그 책을 받아 아름답게 포장도 하고 책상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가끔 그 책을 들고 가슴에 품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값진 보화를 안고 울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그 책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으며, 빛이 곁에 있으니 암흑 속에 남겨 두지 말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딸에게 몰몬경의 첫 구절만이라도 좀 읽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나 니파이는 홀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그녀는 그 구절을 수없이 반복하여 외었습니다. 그녀는 각 글자를 유심히 살펴 보았으며,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뜻이 무엇인지를 익혔습니다. 그녀는 글자를 암기하여 가며 배웠습니다.

다시 그녀는 딸에게 두 번째 구절을 읽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녀는 전 문장의 내용이 마음속 깊이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여 읽고 외었습니다. 서서히 한 구절씩 계속하여 경전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알아 보게 되었습니다. 곧 그녀는 스페인어의 어순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문장을 분석하고 글자를 결합하며 그 말들을 발음과 연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놀라운 정도였습니다. 매일 몰몬경의 구절을 읽어 나갔습니다. 마침내 몰몬경의 어느 부분이라도 다 읽을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그녀는 읽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때부터 메디나 자매는 열심으로 몰몬경을 읽었으며, 교리와 성약도 읽어서 영감에 찬 메시지의 지혜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그녀의 행복에 찬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나를 만날 때마다 새로 읽은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사야

가 전한 말씀을
이해하는
열가지 열쇠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열 우리의 구원이 니파이가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던 것처럼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물론 니파이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겠지만—우리는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위대함이라” (니삼 23:1)고 말한 니파이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레이먼과 레뮤엘에게는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온전히 인봉된 책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니파이의 형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쓴 말을 읽을 수는 있고 볼 수는 있었지만 그 책에 담긴 예언의 의미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모르는 언어를 보는 듯했던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바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니파이 백성과 우리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라... 진실로 저가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내 백성에 관하여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으니, 이방인에게도 이야기함이 마땅하도다. 이사야의 모든 말이 전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지리로다.” (니삼 23:1-3)

니파이는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위대함이라” 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예언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교회 회원의 마음속에서 밝게 빛을 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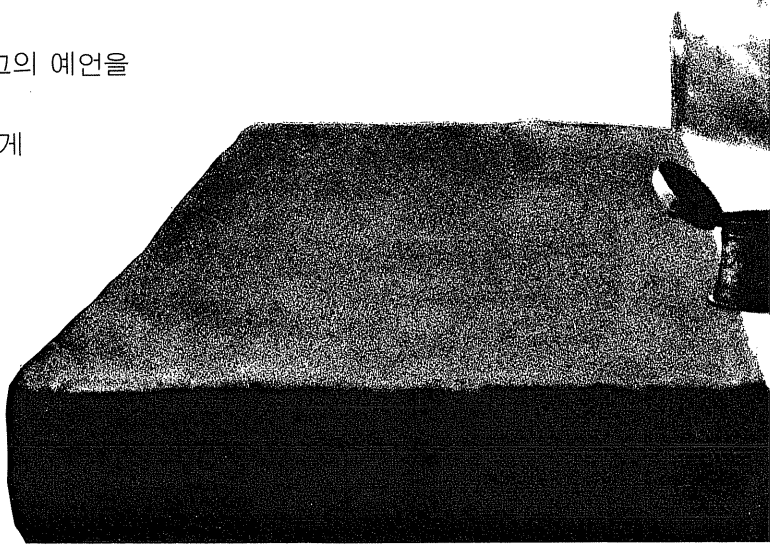
레이먼과 레뮤엘은 현대 기독교인의 전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고대 예언자의 어려운 교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고 있지 않았으므로 영원한 파멸로 이르는 길에 들어 섰습니다.

부친인 리하이가 “저들에게 주께 간구하지 않고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 대항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니파이는 그들에게 “너희가 주께 간구하여 보았느냐”하였더니 그들은 “간구하지 않았노라. 주께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심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때 니파이는 어느 누구든지 계시로 주어진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위대한 약속이요 율법인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강퍽하게 먹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며, 응답되리라 고 믿으며, 신앙으로 내게 구할진대, 이러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니삼 15:1-11 참조)

니파이는 “내가 이사야의 말씀을 기꺼워...” (니이 25:5)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도 이사야와 그의 말씀에 대해 니파이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니파이나 이사야가 간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사용한 말을 써야 하고, 그들이 생각한 사고 방식대로 생각해야 하며,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알아야 하며, 그들이 믿고 가르친 바를 믿고 가르쳐야 하며 그들이 살아온 대로 살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구원(여러분의 구원도!)은 니파이가 이사야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것과 같이 실은 이사야



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지어 볼 때 이사야나 니팰이가 알고 있는 일을 우리가 몰라야 할 이유라도 있겠습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자녀를 다 같이 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바를 우리들에게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에 따른 율법의 조건과 그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 7:14 참조) 이 “아기”가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게 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엄존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분입니다. (사 9:6-7 참조) 그는 죄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시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신 분입니다. (사 53:9-10 참조) 그가 모든 인류에게 주는 구속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사 26 : 19) 그는 말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고 “여호와와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그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사 35 : 10) 시온으로 오게 하실 분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을 마주(사 52 : 8)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과 다른 여러 가지 값진 진리가 이사야와 니파이에게 알려졌는데 우리에게 왜 감추어져야 하겠습니까? 왜 이들 선지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합니까? 주 여호와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의 말씀의 거의 대부분은 오늘날 세상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이해력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니파이는 “...이사야가 많은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어려운 것을 많이 이야기하였음이었어요...” (니이 25 : 1) 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교회에 속해서 성신의 은사로 깨우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도 물론경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봉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 이사야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자로 손꼽히는데, 그의 말씀도 역시 우리가 알고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일성도 가운데는 그가 직접 기록한 예언의 경이로운 의미를 다소나마 어렵듯이 깨닫는 사람이 있으나 아직도 이 위대한 책을 희미한 촛불 정도의 빛을 발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의 시현을 “말 아래”(마 5 : 15 참조) 묻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예언의 말씀은 모든 교회 회원의 마음속에서 밝게 빛을 발해야 합니다.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지식을 폭 넓게 알고 싶고 주님께서 말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을 알고 싶은 분은 이사야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따라야 합니다. (니삼 23 : 1 참조) 나는 빛과 지식의 홍수가 그리스도와 그의 율법을 증거해 주는 그의 글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게 하는 문을 열어 주는 열쇠를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사야는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열 가지 열쇠를 소개해 드립니다.

1. 구원의 계획과 지상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으라.

이사야서는 물론경 니파이서나 모로나이서가 그렇듯 구원의 교리를 설명해 주는 결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구속의 보혈로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아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의로운 사업이 아버지의 왕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데 필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루시퍼와 그의 무리가 육신을 입지 못하고 세상에 추방된 사실을 설명해 주는 이사야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국 전쟁과 천세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2. 주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와 운명에 관해 배우라.

이사야는 선택된 민족에게 그의 사랑과 관심을 집중하였습니다. 그의 예언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예언에는 야곱 자손이 말일에 승리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잘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회복을 예언한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거룩한 예언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듯이 주님의 계획은 만유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진리, 교리, 권능, 신권, 은사, 자비, 기적, 의식 기타 행해진 모든 사업이 다시 지상에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받아들인 복음이 위대한 복천년이 있기 전과 그 기간 중에 아담의 후손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시 왕국을 소유하게 되며 또다시 그들의 기업의 땅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상도 낙원의 상태로 되돌아 가며, 예녹의 도시에서 볼 수 있었던 평강과 완전함이 천 년 동안 지상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이 이사야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고대의 예언자들 중에 그는 회복되리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 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시 확립될 영원한 성약과 이스라엘에 회복될 왕국과 주님의 재림과 복천년에 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3. 이사야가 쓴 주요한 교리에 대해서 알아.

그가 교리에 관해 공헌한 업적은 크게 다음 7가지로 구분됩니다. (1) 말일에 요셉 스미스를 통해 복음이 회복됨. (2) 말일에 이스라엘이 집합하고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누림. (3)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 물몬경의 출현과 인간이 교리를 이해함에 있어 이것이 가져다 줄 획기적인 변혁. (4) 말일에 배도된 세상의 상태. (5) 주님의 첫번째 오심에 대한 예언. (7)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와 예언의 말씀.

이 모든 것 중에서도 회복의 날과 과거, 현재, 미래의 이스라엘 집합에 관해 다시 강조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회복을 과거의 일로만 생각하는 미시적인 안목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집합이 아직은 진행 중에 있으나 대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교리, 신권,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잔류민이 집합하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교회에 들어 오고, 구속주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도 회복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놀라운 진리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 다. 물몬경의 인봉된 부분이 아직도 번역되지 않았습니 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모든 것이 새롭게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회복의 시대가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 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천 년이 남았습니 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단 7 : 27)가 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 다. 이제 우리는 시작의 발을 내딛었으며, 밝혀질 영광과 기적은 미래를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회복을 예언한 이사야가 한 말은 아직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주님이 오심을 여러 차례 아름답게 완전하게 예언하였기 때문에 메시아의 예언자로 알려졌습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떤 구 세계의 예언자도 그에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더우기 그리스도의 첫번째 오심은 분명한 사실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부여받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어 주님이 태어나시고 성역을 베푸시고 죽으신 사실을 회고해 볼 수 있을

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가 진실로 회복을 예언한 예언자이며, 야곱의 후손을 본 선견자라는 분명한 사실을 마음속 깊이 심어 두어야 합니다. 그는 오늘날을 보았으며, 영적으로 궁핍해 있고 지쳐 있는 이스라엘 선조들을 후손에게 올 영광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격려하여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말일에는 주님께 돌아가 진리와 의로움 안에서 그를 섬기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 물몬경을 활용하라.

이사야서는 66개의 장과 129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다는 더 완전한 형태의 이사야의 말씀이 낫쇠판에 보존되었습니다. 니파이의 예언자는 이 판에서 414개의 절을 인용하였고 나머지 34개의 절을 풀이해 적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사야서가 삼분지 일(정확히 32퍼센트)이 물몬경에 인용되었고 나머지 3퍼센트가 풀이되어 실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유의하고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몬경의 예언자는 그들이 사용한 문구를 해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말일의 경전이 되는 본책은 구약 성서의 진리에 대한 증거와 그를 밝혀 준 보충 자료가 되었습니다. 물몬경은 이 세상에 나온 가장 훌륭한 이사야서에 대한 주해서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의 니파이 증인의 입을 통해 밝혀 주신 바를 먼저 배우거나 믿지 않고서는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진리를 주님 자신이 “...너희 주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그 번역은 참되도다”(교성 17 : 6)고 하신 성스러운 책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히 6 : 13)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몬경과 이 책에 실려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그의 마음ियो 뜻이요 음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사야서의 일부를 기록한 제자로서 제2의 이사야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분리주의파의 생각은 교회 내외의 지식인이 그들의 충성을 엉뚱한 곳에다 바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 말일의 계시를 활용하라.

주님께서는 직접 계시를 주셔서 오늘날에도 이사야서의 내용을 해석하시고, 승인하시고 분명히 해주십니다.

1823년 9월 21일 모로나이가 요셉 스미스에게 왔을 때 그 천사는 “이사야서 11장을 인용하고 말하기를, 그 예언은 바야흐로 성취되게 되었다”(요셉 스미스 2서 : 40)고 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113편에는 이사야 11장과 52장의 구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01편에는 이사야 65장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들어 있으며, 133편에서는 이사야 35,

51, 63, 64장을 주님께서 평이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각주 참조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말일의 계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설명하고 해석해 준 예는 줄잡아 백여 차례나 된다고 하겠습니까. 이 현대의 계시는 2500여년 전 그의 마음속에 지닌 성령의 감동을 지금도 생생하게 전해 줍니다.

물론 예언자 요셉 스미스나 기타 이 경륜의 시대의 영감받은 의로운 교사의 설교에서도 이 위대한 예언자의 말씀이 풀이되고 있습니다. 흔히 예언자의 기록에 담긴 특정 구절에 관련된 연도, 장소, 주제 등은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전 구절과 이와 관련된 사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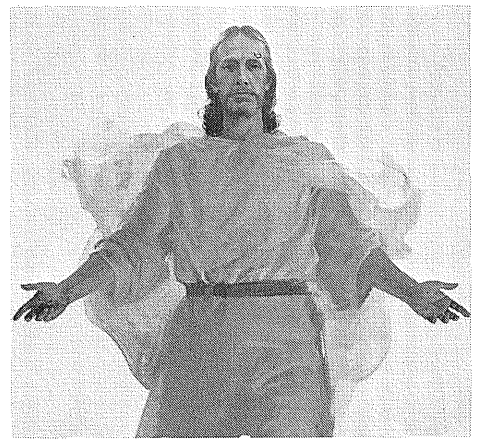
이사야서 해석의 열쇠

장 사건



- 5 고대 이스라엘의 배도와 반역, 회개를 외침, 회복과 악인의 멸망에 대한 약속.
- 2~14 니파이이서 12~24 장에서 니파이가 인용함. 니파이이서 11, 19, 25, 26 장에 기록된 일반적인 해석.
- 2 니파이이서 12 장. 오늘날의 신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집합함. 말일의 이스라엘의 상태, 복전년의 상태와 그리스도의 재림, 미가 4, 5 장, 니파이이서 20, 21 장.
- 3 니파이이서 13 장. 그리스도 재림 이전의 이스라엘의 분산과 배도의 상태.
- 4 니파이이서 14 장. 복전년.
- 5 니파이이서 15 장. 이스라엘의 배도와 분산. 불행한 상태, 회복과 집합.
- 6 니파이이서 16 장. 이사야의 시현과 부름. 9절과 10절은 메시아에 관한 기록임.
- 7 니파이이서 17 장. 메시아에 관한 10-16 절을 제외하고는 지방의 역사. 니파이이서 11 장.
- 8 니파이이서 18 장. 전쟁과 역사. 참된 종교를 알아보도록 권고함. 13-17 절은 메시아에 관한 기록임.
- 9-10 니파이이서 19-20 장. 지방 역사. 앗수르인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은 그리스도 재림시 악한 민족의 멸망의 예가 됨. 9장 1-7 은 메시아에 관한 기록임.
- 11 니파이이서 21 장. 회복, 이스라엘의 집합, 복전년, 요셉 스미스 2서 40 절, 교리와성약 101 편 26 절, 113 편 1~6 절, 1~5 절은 메시아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도 적용됨. 니파이이서 30: 9-15.
- 12 니파이이서 22 장. 복전년.
- 13 니파이이서 23. 바빌론의 멸망이 그리스도의 재림

- 의 예가 됨. 교리와성약 29, 45편
- 14 니파이이서 24 장. 복전년의 이스라엘의 집합, 전국 전쟁에서 루시퍼의 패배, 재림 전의 멸망.
- 15-17 지방의 예언과 역사, 회복의 날에 이스라엘을 대항한 자의 운명. 16 장 4-5 절은 메시아에 관한 기록임.
- 18 회복, 이스라엘의 집합, 미대륙의 선교사를 해외로 보냄.
- 19 지방, 회복의 날에 이집트의 구원.
- 20 지방
- 21-22 지방, 그리스도 재림의 예표. 22 장 21-25 절은 메시아에 관한 기록임.
- 23 지방
- 24 말일의 배도와 그리스도의 재림. 교리와성약 1 편.
- 25 그리스도의 재림 8 절은 메시아에 관한 기록임.
- 26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복전년.
- 27 복전년의 이스라엘의 승리.
- 28 그리스도 재림시 폐허사건 16 절은 메시아에 관한 기록임.



7. 구약 전서에서 이사야를 연구하라.

다른 구약의 예언자들도 똑같은 교리를 전했고 이사야와 똑같은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예언자들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사실을 어떻게 말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로서 이사야 2장 2-4절은 미가 4장 1-3절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일에 집합한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신전에 모든 나라 사람이 모여 든다는 위대한 예언을 하고 이들이 모인 이후에 일어날 복천년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복천년의 사건들을 다른 것을 들어 설명하여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해주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똑같은 일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니파이삼서 20, 21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미가 4, 5장에서 인용한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8. 이사야의 시대에 유대인 가운데서 쓰인 예언의 방법을 배우라.

많은 니파이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언을”(니이 25:1)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말일성도를 포함해서 일반 기독교인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니파이는 그의 예언의 말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예언자들 중에는 이렇게 하지 못할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사악해지자 이사야와 다른 예언자들은 그들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예표나 그림자”(모 13:10 참조)를 사용하거나 남이 듣지 못할 말을 썼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비유속으로 감추어졌습니다. (니이 25:1-8)

일예로 동정녀에 의한 구세주 탄생에 관한 예언은 지방의 역사적인 일 중의 하나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700년 후에 세상에 온 주 여호와의 탄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 7장 참조) 이와 비슷한 것으로 말일의

배도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는 여러 장은 고대의 나라들과 관련시켜 쓰여졌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상징이나 예표나 그림자였으며, 이것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 모든 나라에게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13, 14장이 좋은 예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체제를 알고 물몬경이나 현대의 계시에서 발견된 해석의 열쇠를 사용하면 우리는 곧 이사야의 구절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펼쳐짐을 알게 됩니다.

9. 예언의 영을 지니라.

끝으로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진리를 말한 사람에게 임했던 예언의 영이 경전을 읽는 사람에게도 임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전은 성신의 권세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신이 뜻한 바를 나타내 줍니다.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권세로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벧후 1:20-21) 예언자를 이해하려면 예언자가 있어야 하며, 교회의 모든 충실한 회원은 “예언의 영”인 “예수의 증거”를 지녀야 합니다. (계 19:10) 니파이는 “이사야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 가득한 자에게만 간결함이라...”(니이 25:4)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는 논쟁의 핵심이며 결론입니다.

10. 꾸준히 성실히 연구하라.

각 절과 생각과 장을 차근차근히 읽고 꼼꼼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누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사 28:9-10)

이제 예수에 대한 간증을 담은 이 사람의 글인 66장을 빨리 읽고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준비하십시오.

참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진리를 밝히시고 오늘날 다시 같은 진리를 나타내셔서 고대와 현대의 말씀을 하나로 하신 장본인인 여호와 주님께 이를 간구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시대를 통해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6. 신약 전서가 이사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우라.

이사야는 예언자 중의 예언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언자로서의 본분에 대해 생각하는 전형적인 예언자입니다. 그의 말씀은 경전을 지은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는 신약 성서에서 57회나 인용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보낸 여러 차례의 서한에서만도 이사야의 말씀을 20회씩 상기시킨 그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도 일곱 차례나 그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일곱 차례 인용되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도 각각 다섯 번씩 인용되었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도 네 번씩 인용되었습니다. 인용구 중에는 두 번씩 인용된 것과 성격상 메시아에 관한 것이 있고, 모두가 원전의 뜻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 29 니파이이사 26:14-20. 27. 니파이인, 말일, 배도, 물론경, 회복. 이 물론경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 장을 영감받아 풀이한 가장 좋은 예이다.
- 30 반항적이고 세속적인 이스라엘이 회복의 날에 구원됨. 배도, 회복, 축복, 그리스도의 재림.
- 31 세상 대 그리스도 재림
- 32 회복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배도. 1-4 절은 메시아에 관한 기록임.
- 33 회복후의 배도.
- 34 그리스도의 재림과 뒤따른 폐허, 교리와성약1. 133 편.
- 35 회복, 집합, 재림, 교리와성약133 편.
- 36-39 영감과 아름다움에 관한 지방역사.
- 40 재림, 1-11 절은 메시아에 관한 기록임.
- 41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변론하심. 고대와 현대, 회복의 때를 말함, 27 절은 메시아에 관한 기록임.
- 42 1-8. 16 절은 메시아에 관한 기록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슬퍼하는 장.
- 43 회복과 집합.
- 44 회복과 집합.
- 45 집합하고 구원되는 이스라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20-25 절은 메시아에 관한 기록임.
- 46 고대나 현대의 우상 숭배와 참된 하나님.
- 47 현대 세계의 상징인 바빌론.
- 48-49 니파이이사20: 21. 이스라엘의 분산과 집합. 니파이이사22 장: 니파이이사 6 장.
- 50-51 니파이이사 7: 8. 분산, 집합, 회복, 재림. 니파이이사 9 장1-3 절, 50 장5-6 절은 메시아에 관한 기록임.
- 52 회복과 집합. 모사이아서 12 장20-25절, 15 장13-18 절. 니파이삼서 16. 20. 21 장. 모로나이사 10 장30-31 절, 교리와성약 113편7-10. 13-15 절은 메시아에 관한 기록임.

- 53 모사이아서 14 장 가장 위대한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 모사이아서15-16 장.
- 54 회복과 집합, 복천년. 니파이삼서 22 장. 23: 1~6. 14.
- 55-62 배도, 회복, 집합, 말일의 시온의 영광, 61 장1-3 절은 메시아에 관한 기록임.
- 63-64 그리스도의 재림. 교리와성약. 133 편
- 65 말일의 이스라엘과 거짓 종교인, 복천년. 교리와성약 101: 22-38.
- 66 회복과 재림.



선견자 이사야, 회복을 예언한 예언자 이사야, 메시아에 관해 예언한 예언자인 이사야에 관해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더 첨가합니다.

1. 구원의 교리에 관한 경전의 이해와 위대한 통찰력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완전케 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2. 이사야가 기록한 바는 진리입니다. 그는 당시에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그가 오늘날에 일어나리라고 약속한 영광과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고 성실하면 이 세상에 있던 죽은 후이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드리는 간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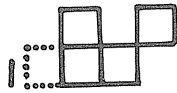
심심풀이

숨은 물건 찾기 로버타 엘 케어울

다음 그림 속에서 쥐, 물고기, 종이 봉투, 공, 바구니, 리본, 종, 꽃을 찾아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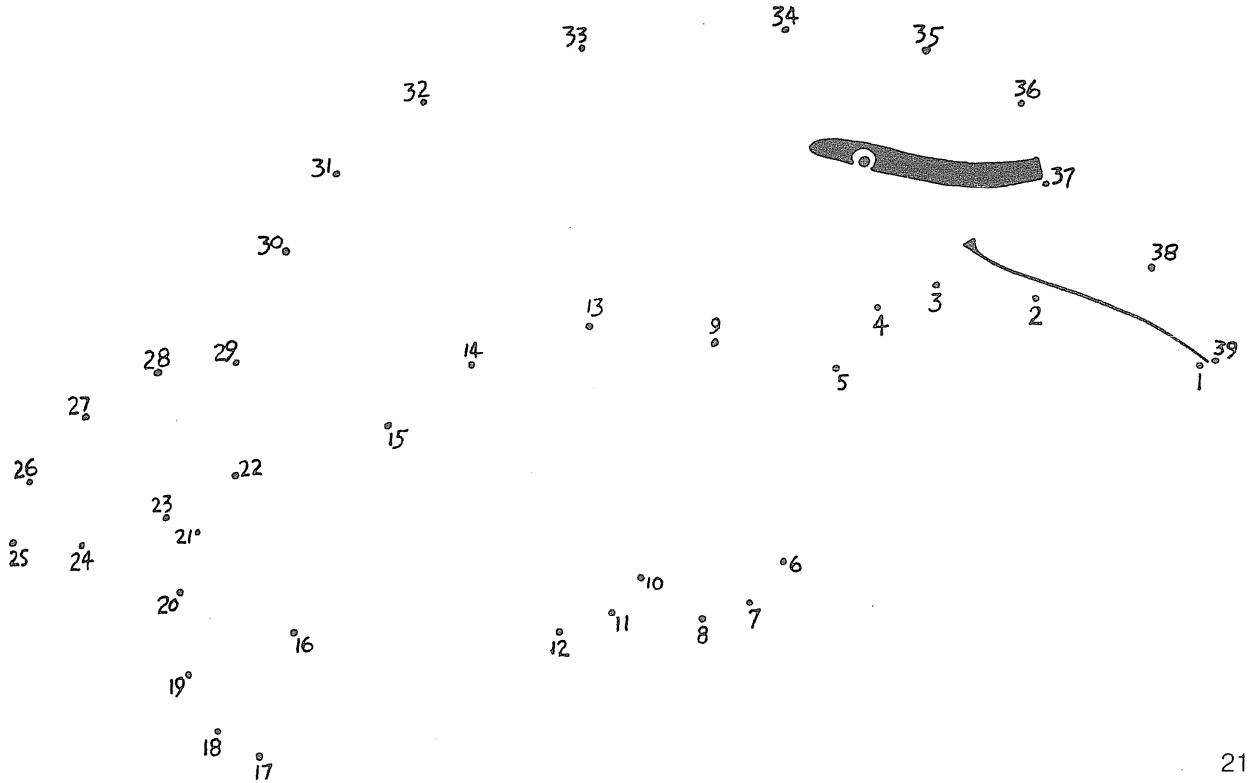


17 개의 성냥 개비는 6 개의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3 개만 움직여서 5 개의 사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성냥 개비를 움직이기 전에 새로운 사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점잇기 캐롤 코너

장난기가 있는 다정한 바다 짐승을 찾아 보세요.





도미꼬의 친구

폴리 레만 글 / 리차드 헐 그림



續

도미꼬의 친구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난 굴을 찢어 어요!” “난 불가사리를 잡았 어요!” “난 해파리요!” 도미꼬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여름 바닷가 동물 채집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녀는 물이 빠진 썰물 때 바닷가 동 물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장화를 들고 해변가로 달려 갔습니다. 시간이 없으나 조개밭에 이르던 장화를 신어야만 합니다. “난 대합을 잡았어요!” 하며 친구인 다 로오가 소리쳤습니다.

클럽 주임 교수인 사토 선생님은 이 렇게 외쳤습니다. “다로오가 4번째 회 원이 되었습니다.”

도미꼬는 아직도 기회는 있다고 생 각했습니다. 클럽은 회관으로 사용하 지 않는 실현실을 쓰고 있는데 금년 에는 열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없기 때 문에 열 명 만을 회원으로 받아들이 게 되었습니다.

저 큰 바위 근처에서 큰 놈을 꼭 잡 고 말 거야! 하고 그녀는 생각했습니 다. 그녀는 넘어질 듯 비틀거리며 험 한 바위 위를 기어 올라 갔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해초를 밟고 미끄러져 물을 튀기면서 물 속으로 빠지고 말 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사토 교수가 5번째 회 원인 후미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미꼬는 물 속으로 손 을 집어 넣었습니다. “꼭 잡고 말 거 야. 클럽에 꼭 끼고 싶거든” 하며 절 망적인 음성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 큰 바위를 잡으려 했지만 다시 미끄러지 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도하

여 이번에는 길게 뾰족하게 뻗은 검 은 덩어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나무 줄기의 혹처럼 울퉁불 퉁했으며 소시지를 만지는 것과 같 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랫쪽에는 비 밀 통로(관족*)가 나있어 물과 모래를 뿜어 냈습니다. 도미꼬는 검은 덩어 리가 물과 숨어 사는 작은 게를 밖으 로 뿜어 내자 “야아!”하고 소리질렀 습니다.

큰 게가 검고 긴 덩어리를 향해 다 가 오자 도미꼬는 큰 바위 위로 기어 올라 갔습니다. 그녀는 게가 검은 덩 어리를 향해 공격하고 발로 긁어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이 덩어리는 그 통로로 끈 끈한 물을 쏘아 뱉습니다. 찢뜩찢뜩 하던 덩어리가 도미꼬를 놀라게 했습 니다. “마치 나에게 끈끈한 물을 쏘 아대는 것 같군. 그렇지만 난 어떻게 해서라도 무엇이든 하나는 잡아야 해” 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 덩어리를 응시하면서 물 속으로 몸을 담그었습니다. 다시 통 로에서 모래와 물을 세게 내뿜었습니 다. 그런데 한쪽 끝에서 작은 깃털과 같은 빨간 가지가 앞뒤로 흔들거렸습 니다. 작은 생물들이 거기에 걸렸습 니다. 이제 다시 그것을 밀어 내고 다른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 습니다.

“저게 그 놈의 입이라면 저 가지는 나를 물지는 않을 거야” 하고 도미 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얻어 덩어리 쪽으로 다가 갔습니다. 끈끈한 배 쪽으로 손가락을 갖다 대 보고 도미꼬는 발이 나 있는 것을 느 껴했습니다. “빨판을 가지고 있네!”하

며 그녀는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미 끄러운 바위에 붙어 있구나.”

그녀는 덩어리를 떼려고 하였지만 꼭 달라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녀는 두세 개의 덩어리가 더 있음을 알았습니다. “두 개가 더 있 네!” 하며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도 대체 너는 무어니? 오이처럼 생겼구 나.”

“그건 해삼이야” 하며 그녀의 말을 들은 다로오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집어도 괜찮아 물지 않아.”

“해삼을 잡은 도미꼬가 열 번째 회 원이 되었습니다.”라고 사토 교수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클럽은 모두가 찻어요!”

“인제 나도 클럽에 들었어. 야 신 난다”하며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다로오도 그녀를 향해 잡은 대합을 흔들며 보였습니다. “바꾸자. 나하고 바꾸지 않을래?” 하며 다로오가 말 했습니다. 그는 해삼을 떼어서 자기 의 손에 붙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해삼을 좋아하시거 든. 맛이 있나 봐. 바꾸지 않을래” 하 고 간청했습니다.

“안돼. 내가 귀엽게 여기는 걸 먹 을 수는 없어”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며 다로 오는 해삼을 꼭 움켜 쥐었습니다.

갑자기 해삼은 딱딱하게 오르라졌 습니다. 덩어리 속에 든 것이 물 속 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로오는 딱딱해 진 해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해 삼을 피롭히거나 놀라게 하거나 꼭 잡 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잊 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귀여운 친구가 죽었

어” 하며 도미꼬는 울었습니다. “물로 떠내려 간단 말야”

다로오는 다시 딱딱해진 해삼을 집어 올렸습니다.

“미안하다.”하며 다로오는 사과하였습니다. “내가 우리 아빠가 가르쳐 주신 비법을 알려 줄게.”

그는 도미꼬에게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며 말했으며,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그 비법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야 아빠가 말씀하신 거야” 하고 다로오가 말했습니다. 그는 큰 바위 옆 모래 속에다 딱딱해진 해삼을 묻었습니다.

도미꼬는 아무 말없이 조용히 지켜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마술에 걸리지”하고 물었습니다.

“머칠이 지나고 바위에 물이 모두 빠질 때까지 있어야 돼”하고 그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도미꼬는 매일 같이 조수가 밀려왔다 다 빠질 때까지 바위를 지켜 보았습니다.

그녀는 큰 바위 있는 곳까지 다가가서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미끄러운 바위 표면에 손을 대고 찾았지만 검은 덩어리인 해삼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비법이 사실이 아니라고 도미꼬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모래를 밟으며 다로오가 해삼을 묻은 곳까지 갔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모래 더미를 더듬거렸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손에 무엇이 잡혔습니다. 모래 속으로 작은 통로(관족)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모래와 물을 뽑아 내고 있었습니다.

도미꼬는 기쁨에 넘쳐 손으로 모래

를 열심히 더듬었습니다. 그때 작은 것과 같은 가지가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모래 더미를 헤쳤습니다. 한참 동안 모래를 파다가 손을 넣었을 때 전처럼 소세지 같은 물건이 손에 닿았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삼이다! 그 비법이 사실이었어. 신비로운 해삼이지. 다시 살아났으니”

도미꼬는 그것을 손에 안고 클렘 회관으로 달려 갔습니다. “해삼이 살아났어.” 사도 교수는 어린이들에게 해삼은 속에 남은 찌꺼기에서 새놈이 자라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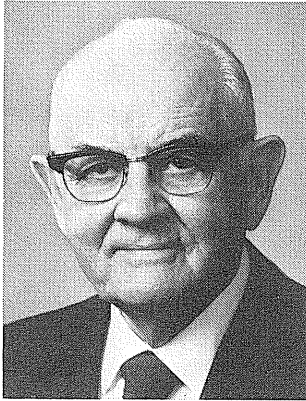
“보았지요 그건 요술이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세상의 또 다른 경이로운 일일 뿐이에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전 아직도 그게 요술같이 여겨져요”하고 도미꼬는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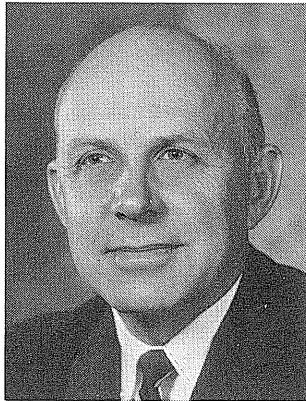
* 관족: 극피 동물의 외표면에 많이 나온 부드럽고 연한 육관. 운동, 촉감, 호흡 작용을 함.



친구가 친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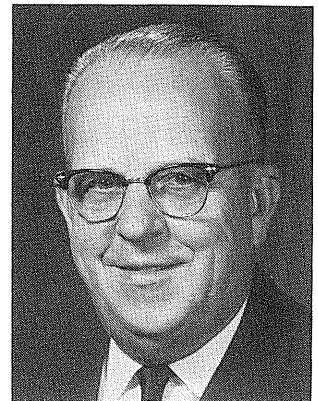
김블



터틀



스테인플리



리차즈

에이 테오도르 터틀 장로

엠티

“청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장차의 선교 사업에 관해 몇 가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한때는 여러분과 같은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래 된 옛날 일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나에게는 바로 옛그제의 일만 같습니다. 나는 매년 매일을 바로 여러분이 살아 온 것과 같이 보내 왔습니다. 나는 이제 가장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께서 이제 우리는 결음의 폭을 넓히고 선교 사업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금이 그 일을 행할 때입니다.”

“나는 한 청년과 선교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난 선교사가 되길 원치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형제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배우시다. 밤낮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훌륭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느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들어가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고 묻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

“건축 기금 모금이나 적십자 기금 모금 운동에 협조하시거나 토요일 저녁 한때를 미망인 가정 돕기 운동에 참여하실 계획이라면 이 사실을 자녀에게도 알리고, 가능하다면 그들도 결정하는 데 참여시키고 내려진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일에도 참여시키십시오. 가족이 모두 가족 중 한 명의 침례, 확인, 안수 등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축구팀에 든 아들을 응원하러 게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가정의 밤, 식사 시간 가족 기도에 정규적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십일조 헌금에 참여하여 교훈과 모범으로 아름다운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프랭크린 디 리차즈 장로

“어느 훌륭한 감독님이 청소년을 그의 사무실에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실험을 하는데 모두들 좀 협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가족 한 명이 가정의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은 모두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가족에게는 일체 이에 관해서 이야기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해 보십시오. 모범을 보이십시오.’”

가족 중에서 다투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랑과 조화와 행복의 분위기를 만들어 그러한 파오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이 청소년들에게는 이것이 큰 목표가 되었으며, 그들은 모두 훌륭히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이 감독에게 보고할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생각조차 못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은 참으로 달랐습니다. 나는 우리가 갖는 갈등이나 소란은 그 대부분이 나와 내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이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항상 사소한 충돌이 있는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빠와 동생들과 한 달 동안 지내는 동안 그러한 문제가 사라졌으며 집안에는 전에 느끼지 못한 사랑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가정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맛보도록 저처럼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델버트 엘 스테인플리 장로

“어린 시절에 익힌 훌륭한 습관은 미래를 위한 기초가 되며, 만년에 이르러 그에게 큰 지주가 됩니다...”

별의 축제

마가렛트 나이트 홀취

엤이 일본에 온 지 일 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엤는 마사나리의 집에서 다나바다(별의 축제)에 초대되어 들뜬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엤이 도착했을 때 마사나리의 엄마가 대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엤 어서 오너라”하고 엄마가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엤은 입구 돌 계단에 앉아 구두끈을 풀었습니다. 다시 그녀는 분홍색 슬리퍼를 신고 날아갈듯 홀로 들어 갔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학교 친구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게이코, 지로, 마사나리가 다나바다(별의 축제) 장식용을 만들기 위해 색종이를 접는 데 쓸 오색 종이에 둘러싸인 채 다다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엤, 내가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지” 하며 마사나리의 엄마는 작은 붉은 개를 다 만드시오 말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동물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붉은 색종이로 개를 만들고 보라색 종이로는 고양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웃는 얼굴과 찡그린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게이코는 여름만 되면 나무 위에서 울어대는 매미를 만들었습니다.

“코끼리를 만드는 걸 봐”하며 지로가 말했습니다.

“내 등 좀 봐” 게이코도 말했습니다.

엤의 친구들은 작고 복잡한 종이 동물을 엤보다 빨리 접었으며, 지로는 손바닥 가운데 작은 귀여운 새를 접어 올려 놓았습니다. “이건 학이야. 학은 빨간 깃을 가진 아름다운 흰 새야. 매년 여름에 우리 섬을 찾아 오거든. 일본 사람에게 장수와 행복을 뜻하는 새야”라고 지로가 말했습니다.

곧 바닥에는 작은 짐승들로 찼습니다. 학, 거북이, 개, 개구리, 등이 있었습니다. 마사나리의 엄마가 대나무 가지로 가지고 와 어린이들이 만든 짐승을 나무에 매어 다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 정말 멋있구나”하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때 마사나리의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별의 전설을 들려 주었습니다.

“하늘에 서로 사랑하는 두 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은하수 때문에 서로 갈라져야 했습니다. 일 년 중 오늘 하루만이 둘은 은하수를 건너 만날 수 있었어요.”

밤이 깊어 아이들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작별 노래를 부르며 밤하늘에 다나바다(별의 축제) 대나무 가지를 높이 치켜 세웠습니다.

접는 요령 :

개

1. 정방형 종이의 양끝이 맞닿게 함께 접는다.
2. 한쪽 끝을 아래로 접는다.
3. 다른 한쪽 끝을 아래로 접는다.
4. 아래와 위의 끝을 위로 접는다.
5. 얼굴을 그린다.

고양이

1. 정방형 종이의 양끝이 맞닿게 함께 접는다.
2. 위의 끝을 아래로 접는다.
3. 한쪽 끝을 위로 접어 올린다.
4. 다른 한쪽 끝을 위로 접어 올린다.
5. 종이를 뒤집고 얼굴을 그린다.

매미

1. 정방형 종이의 양끝이 맞닿게 함께 접는다.
2. 윗 부분을 한점 먼저 접는다.
3. 접친 아랫 부분을 위로 올린다.
4. 이런 모양이 된다.
5. 뒤집어 양쪽을 다시 접는다.
6. 이런 모양의 매미가 된다.

코끼리

1. 정방형 종이의 양쪽을 그림과 같이 접어 중앙선에서 만나게 한다.
2. 연 모양의 종이를 다시 접는다.
3. 뾰족한 부분이 위를 향하게 놓는다.

4. 이것을 다시 왼쪽으로 접는다.

5. 윗 부분을 그림 5처럼 다시 왼쪽으로 접어 뾰다.

6. 윗부분을 다시 뒤로 접어 내린다.

7. 코 부분을 아래로 접는다.

8. 다리와 꼬리는 없애고 상아와 눈을 그려 넣는다.

등

1. 직사각형 종이를 그림과 같이 접는다.

2. 양쪽을 중심을 향해 접는다.

3. 각 끝을 안으로 접어 넣는다.

4. 다시 네 귀퉁이를 뒤로 접어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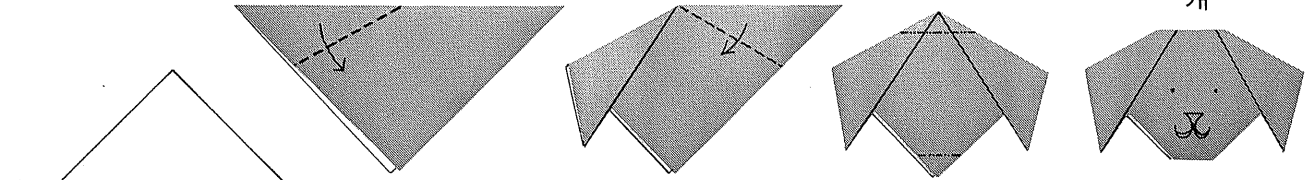
5. 꼭대기 끝을 위로, 아래를 밑으로 밀어 종이 문을 연다.

6. 이런 모양의 등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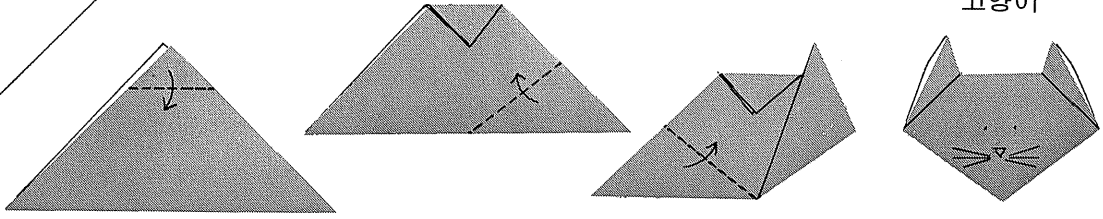
유의 사항 : 원래는 한쪽 면만 색이 든 종이를 만드는 것이나 얇은 종이면 다 좋다. 그림을 보고 점선에 주의해서 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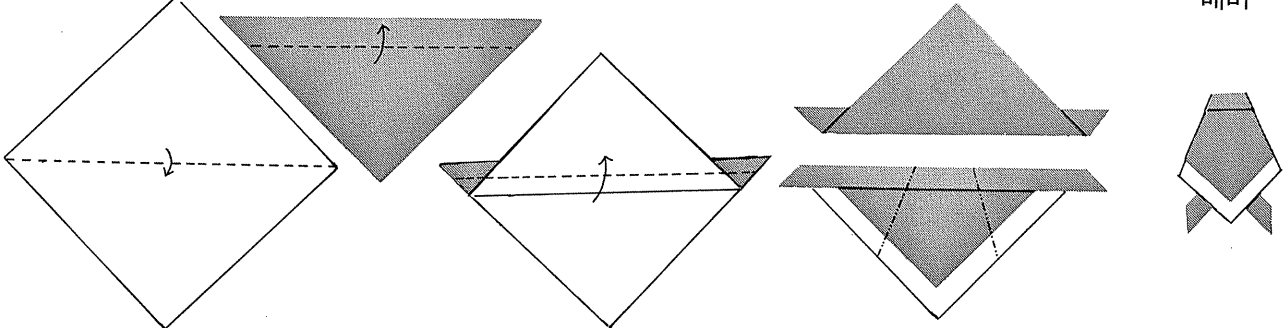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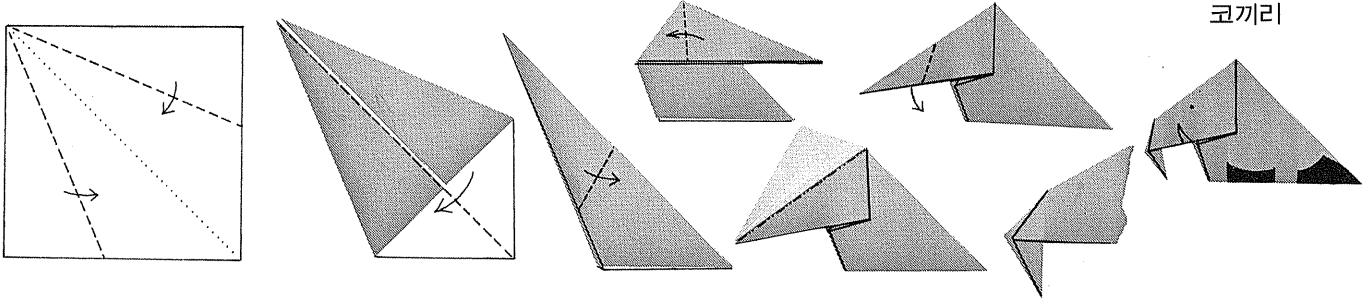
고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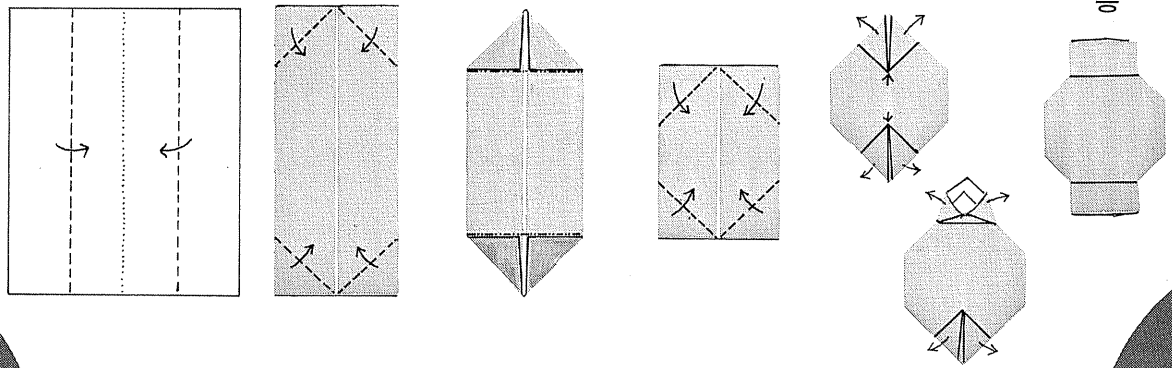
매미



코끼리



등



질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주요 강대국으로 여겨졌습니까? 아니면 한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까? 이스라엘과 분쟁을 한 세계적인 강대국이 역사상 있었습니까?

대답

엘리스 티 라스무센



질문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나라였으나 다윗과 솔로몬(기원전 1,000년부터 930년 사이) 왕 때 인근 국가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이스라엘은 앗수르 사람의 살만에셀 3세나 산헤립 왕의 기록에 의하면 중동 두 제국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850년부터 700년 사이에는 이스라엘을 정복하려는 전쟁이 수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약소 동맹국이 실제로 갈가 전쟁(기원전 854년)에서 앗수르의 공격을 막아 냈습니다. 그후 10년만에 다시 강대국이 쳐들어 왔습니다.

북쪽과 남부 유대 지방에 살던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북부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사르곤 2세로부터 정복을 당할 때까지 앗수르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유대는 선지자 이사야와 훌륭한 왕 히스기야의 지혜와 주님의 도움으로 앗수르왕의 예루살렘 공격을 막아 냈습니다. (왕하 18 : 19 참조)

유대와 관계가 있었던 다음으로 큰 나라가 바빌론이었습니다. 바빌론이 앗수르 대군을 무찌르자(기원전 620-604년) 애굽은 제국의 뿔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진격해 왔습니다. 유대 왕 요시야가 대항했으나 그의 군대도 멸망되고 그도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 있던 애굽의 군사도 오래지 않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기원전 607년부터 587년 사이에 바빌론으로부터 정복당했습니다. 바빌론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조공까지 바치게 하였습니다. 바빌론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멀리 추방해 버렸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바빌론에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유대와 관계가 있던 나라로 바사(페르샤)도 있습니다. 바빌론을 정복한(기원전 539년) 고레스 왕은 속박된 유대인을 유대나 예루살렘으로 되돌

려 보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와 같은 예언자의 지도 아래 작은 국가가 다시 건설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대인과 하나님에게 존경을 보이고 상당한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제국이 붕괴되자 그 지역 통치자인 실루싯과 유대인과의 대립이 생겼고, 마카비 전쟁으로 이것도 종말을 고했습니다. (기원전 164년부터 64년까지; 마카비 1서, 2서 참조—외전에 속한 책)

실질적인 독립을 얻은 후에 내부의 분열로 마카비 왕자는 로마에 원군을 요청하였습니다. 로마는 성지를 점령하였습니다. 막강한 폼페이아 이에 놀라 3개월만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와 점령하였습니다. (기원전 63년)

기원후 66년부터 70년 사이에 로마는 다시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안과 디도의 지휘로 유대에 전쟁을 걸어 왔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기원후 132년부터 135년 사이에 헤드리안 황제가 다시 침략해 왔습니다. 이 전쟁은 거짓 메시아 바 코크바에 대항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멸망되었고 로마시로 새롭게 이름이 붙여지고 재건되었습니다. 기원후 635년까지 이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잔류민의 유대는 매우 작은 약소국이었으나 수세기를 걸쳐 중동 지역의 강대국에 관심을 보이며 지냈고, 몇몇의 강대국이 이 땅을 괴롭혔음이 분명합니다.

의로우신 메시야의 통치가 실현될 때까지는 그 땅과 그 민족이 계속 강대국의 틈에서 시련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스 티 라스무센
브리감 영 대학교 고대 경전
담당 교수

여기에 주어지는 대답은 참고로 주어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74년 10월 6일, 제144 반연차 대회 일요일 아침 모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순수한 청년이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중책을 맡도록
부름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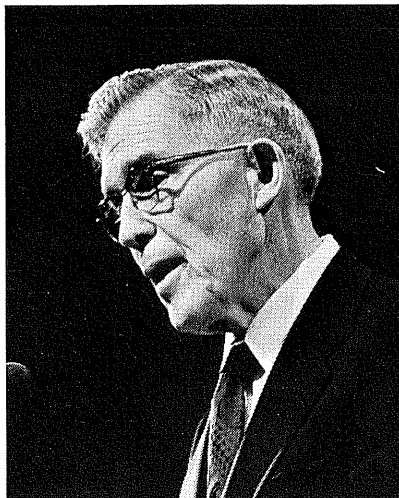
에스 딜워스 영 회장
철심인 제일 정원회

영 나는 오늘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 드는 청소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목적을 그의 종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할 때는 언제나 소년을 택하고 불러 성임하시고 준비시켰으며 그들이 자라서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노예로 끌려 갔던 일, 그가 받은 예언자적인 통변의 은사,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모든 후대의 젊은이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을 보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근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한 그의 기지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함정 속에 꾸부리고 앉은 그가 두려운 눈으로 자신의 몸을 사교파는 형들과 약대상인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 하고 생각해 보곤 합



니다. 그 놀랍고도 기이한 상황이 결국은 전화위복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온 그의 믿음이 대대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장자 상속권과 약속의 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기원전 1000년경 고대 이스라엘로 되돌아가 청년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 신전의 방을 살펴 봅시다. 여러분께서는 그를 부르는 음성을 듣지는 못하시겠지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 자기를 불렀냐고 묻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는 누가 사무엘을 부르고 있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세 번째 일어났을 때 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삼상 : 3 : 9) 주님이 용납과 칭찬의 말씀은 물론 지시와 질책의 말씀을 하셨다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던 기원전 1000년경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만 사무엘은 예언자로 택함을 받지 않았습니까?”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순수한 소년을 택하셔서 진리를 알려 주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님이 예언자의 마음속에 철학자들의 생각보다는 그가 바라는 바를 심어 주신다는 점을 생각하십시오

오. 주님이 이사야에게 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사야 55 : 8)

사무엘의 경우에도 주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이 아닌 그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은 후에야 주님을 보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삼상 3 : 21 참조)

그가 성소나 엘리의 보호를 받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길에서 외쳤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낯선 소년으로 엘리를 찾아 와 문을 두드리고 엘리에게 불 일이 있다고 말했다면 엘리는 사무엘에게 무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다른 아들들을 제쳐 두고 주님의 영에 이끌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던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에 대해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주님의 세 종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들 소년들이 각기 사춘기인 청년 시절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직접 계시를 받아 주님이 하나님이며, 실존하시는 분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해 주신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어찌나 36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십대의 소년이었습니다. 고대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주

님이 오신 지 18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당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두루말이에 적혀 보존되었습니다. 후에 철학자들이 이를 읽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성으로 이 기록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기록을 열심으로 베낀 필기자에 의해서만 재생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 아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400여년 동안 많은 책이 나오게 되었으며 그때마다 오류가 늘어났고, 이러한 점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되고, 많은 사람이 오류가 담긴 말씀을 읽게 되자 교회의 관습이 이 말씀에 실린 원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항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기를 거부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항의를 제기하는 운동이 계속되었으며 신교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

로 오늘날에도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19년 겨울과 1820년 봄 뉴욕주 팔마이라서는 몇몇 종파가 활발히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대항하고 나섰습니다. 목사들은 서로 자기들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확신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목사들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구원을 안겨다 주는 평안을 얻고자 했으나 어느 교회가 옳은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린 소

년이었지만 그는 그토록 상이한 생각과 의식을 보고서 모든 것이 다 참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야고보서에서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 : 5)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사로잡듯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읽고 위안을 받았읍니다. 많은 사람이 권고에 따라 지혜를 구했읍니다. 신앙을 갖게 되자 지혜를 얻게 되었읍니다. 이번에는 영감의 힘이 대단했읍니다. 그는 지혜는 물론 지식도 받게 되었읍니다.

인류 역사상 중대한 시점이 도래했읍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정해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일례로 이스라엘 자녀들이 애굽을 떠나야 했을 때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길을 막으려는 자들은 모두 슬픔을 당하고 말았읍니다. 절정의 때가 이르러 예언자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며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천사가 왔고 갑자기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엘리사벳은 이 위대한 사건에서 자기가 말을 역할이 무엇인지를 들어 알게 되었읍니다. 이 첫번째의 계시가 천사에 의해서 몇몇 목자에게 전해졌읍니다. 그들은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1820년도 그때와 같았읍니다. 때가 이른 것입니다. 말일이 이른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말일을 선언하였읍니다. 어린 요셉은 아버지가 새로 개간한 들을 지나고 낡은 울타리를 넘어 숲 속으로 달려 갔읍니다. 언덕을 올라가 그는 마음이 흔들릴 수 없고 그의 온 정성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되었읍니다.

강렬한 하늘의 빛을 받았을 때 근 1800여년간 잘못 전해 내려 오던 온갖 오류가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읍니다. 그곳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서 계셨고 그의 옆에는 영화롭게 되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읍니다. 요셉은 이 두 분이 완전한 인격체이며,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2서 : 17) 요셉은 그의 말을 들었읍니다.

그는 참된 교회가 지상에 없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는 또한 모든 것이 혼란에 빠져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권능을 지닌 자도 없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 봄날 많은 중요한 진리가 그에게 전해졌으며 그는 지상에 회복될 참된 교회를 세울 도구로 쓰이게 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 온 그는 그가 본 시현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읍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과 누이 동생이 모두 그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모두 요셉을 비웃었으며 조롱하였읍니다.

그와 같은 비웃음과 조롱이야말로 어린 소년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장 심한 박해가 아닐 수 없었읍니다. 그에게 어떻게 진리를 간구해야 하는지를 충고해 주었던 친절한 목사도 냉소를 지으며 그를 비난했읍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성년기에도 접어 들었읍니다. 예언자에게 요구되는 일을 할 때가 이르자 비난과 조소와 육체적인 고통이 그를 뒤따랐읍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안 사무엘처럼 요셉은 하나님과 아들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읍니다.

고대의 선지자 요셉처럼 그도 그의 정해진 길을 걸었읍니다. 그를 도구로 삼으신 주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빛의 교리를 알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 주셨고 아버지가 지니신 모든 것과 영생을 누리며 그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편견없이 진리를 간구하는 사람에게 오는 분명한 표적인 놀라운 증거를 주셨읍니다. 그 증거란 예수 그리스도가 고대 미대륙 백성을 방문한 기록으로 물론경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증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증거입니다. 그책을 번역하게 한 금판의 존재를 이를 본 11명이 입증하였고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3명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전해져 이 고대의 기록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번역”(물론경 서문)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읍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증거를 시험해 보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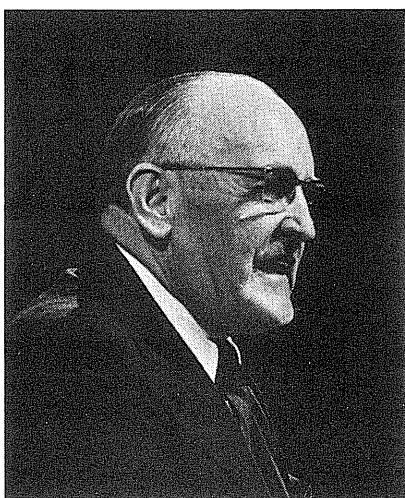
물론경을 구하십시오.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알게 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지니고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언자의 말씀대로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이 참된 것인지 간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성신의 권세로 “그것의 참됨을 나타내어”(모로 10 : 4 참조) 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시험을 해보신다면 현재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가 참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신의 권세로 그러한 진리를 알게 되신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 가고, 위대한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말일성도와 함께 어울릴 때 비로소 여러분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이 왕국의 권세와 권능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에게 있습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오늘날 살아 계신 예언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진복팔단”

진실한 제자라면 진복팔단에서 가르쳐진
성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 레스리 스톤
십이사도 보조



엠펙 우리는 구세주께서 성역
을 베풀기 시작한 초기에
12제자와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갈릴리해를 굽어
보는 언덕에 올라 산상수훈을 주
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 진복팔단이라고
알려진 내용입니다. (마 5:1-11
참조) 이제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
니다.

이 진복팔단은 주님의 가르침의
근본으로 그의 정신과 생활 태도
를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란 이곳에
담긴 성품으로 이루어진 인격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시켜야 하겠다는 목표
를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진복팔단의 첫 내용을 읽을 수 있
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란 무슨 뜻일
까요?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아닐까요? 영적으로 가
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께 가까이 가서 그들의 요구를 들
어 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배우고
열심히 그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
력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축복
즉 구원, 승영, 영생 등 하나님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를 받을 자
격이 있게 됩니다. (교성 14:7
참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
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태
복음 5:4)

애통하는 자는 그의 슬픔의 성
스러운 의미를 알 때 위안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음 세상에
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준비시키
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 가는
동안 문제를 겪고 해결하게 하셨
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무명 작가가 이렇게 말했
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사
는 동안 모든 고난과 불행이 제거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고난이 모두 사라진
다면 강인하고 교상하며 관대하
고 사랑에 찬 인간이란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고난과 비통에 찬 때에
라도 자신을 비참한 상황으로 끝
어 넣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신
앙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위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도 신앙과 봉사를 통해 복음
의 참된 위로를 알게 되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5)

온유함이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베풀어질 수 있는 미덕입니다. 온유한 자는 친절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관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만심과 거짓이 없습니다. 잠언에는 “노래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잠 16:32)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이란 자기 경시와는 다릅니다. 자제심이 깃들어 있으므로 약한 게 아니요 영웅적인 성품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그는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태복음 5:9)

진리를 구하는 자는 진리의 양식을 배불리 먹게 됩니다. 현대의 경전인 교리와 성약 88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교성 88:63)

우리는 의의 빛을 발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의에 굶주리고 목이 마르다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우리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10)

“궁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홀히 여김을 받을 것

임이요”(마태복음 5:7)

자비를 보이는 사람은 자비를 받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올리는 것보다 더욱 마음을 연단시켜 주는 훌륭한 수련은 없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어떠한 경우를 당해서도 용서와 자비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

나님의 사랑과 지식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청결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잠언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 23:7)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



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눅 6:36-37)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셔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태복음 5:8)

그리스도는 마음이 청결하면 하

계신 곳에 가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그분과 같은 분이 되어야 하며 그분이 지니신 원리를 지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근본 원리에 있어서 그에게 가까이 가 있지 않고서는 그로부터 나와 악마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간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지를 알아 보십시오. 나도 스스로 간구하고 내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선해지셔야 합니다. 그분이 성실하므로 여러분도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미덕을, 미덕에 지식을 더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추구하십시오

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 4:588)

그는 후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덕하고 순결하십시오. 고결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보다 완전히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길은 완전한 날을 향해 더욱 밝게 빛을 비추어 주는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까? 그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여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불화나 오해를 가진 사람과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화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분노에 찬 복수보다는 관용을 바라셨습니다. 화를 내기 보다는 가서 더 겸손한 자세로 “다른쪽 뺨마저 대고, 입은 옷까지 벗어 주는” (마 5:39-41 참조)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진복판단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 5:10)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태복음 5:11-12)

오늘날 교회의 회원들은 눈에 보이는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압력에 대해서도 위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가 정한 복장이나 도덕의 표준을 지키며 살아 가는 가운데 그러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이러한 표준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될 것이며 비판의 소리를 듣고도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는 그들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깊어지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원리와 오늘날 교회 지도자의 원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큰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기쁨으로 물려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최선의 것을 달성할 때는 언제나 구세주가 우리에게 주신 원리와 이상을 실천한 때입니다. 그를 따를 때 영혼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요 14:15)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지켜야 하나요? 하루 종일일까요? 일 주일 동안만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일 개월이나 일 년 동안만 그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내가 알기로는 누구든지 끝까지 성실하지 않으면 의로운 자에게 오는 보상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가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를 모두 이해하고 성실히 실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계신 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한 셈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에 따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의 표지판입니다.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맡은 바를 다할 때 그러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의 가르침에 따를 때 큰 축복이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미래의 길을 설계할 때 진복판단의 가르침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잊지 맙시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로운 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성하지 못한 것들을 모두 던져 버리고 우리의 선한 동기를 갖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9)

화평케 하는 자는 혼란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이웃을 구해 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화평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평안을 가져 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젊은이들은 가장 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빅터 엘 브라운 감독
관리 감독



續 최근에 청소년 지도자들이 모여서 오늘날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12세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탄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하였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사실상 사탄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의롭고 선한 모든 것에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있었던 천국 회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영생과 관련된 그의 계획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사람들에게 의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스스로가 갈 길을 택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을 지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옵소서.” (모세서 4:2) 그러나 루시퍼는 아버지의 계획을 수정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는 당

신의 아들이 되겠아오며, 내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 하리니,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예를 내게 주소서.” (모세서 4:1)

천국의 무리 삼분의 일이 사탄을 따랐습니다. 대전쟁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의로움에 대적하는 무리의 사령관으로 사탄이 힘을 잡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서에 보면 주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에 사탄이 모반하여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미 부여한 인간의 자

유의지를 멸하려 하였고, 나의 권능을 자기에게 줄 것을 구하였으므로 저는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써 던짐을 받게 하였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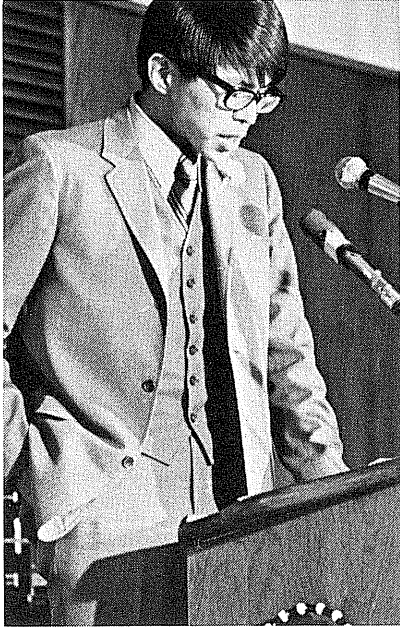
“이에 저가 사탄이 되었나니, 참으로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버지. 인간을 미혹케 하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많은 자를 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 (모세서 4:3, 4)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사탄의 뜻에 포로가 된 무리를 생각해 볼 때 사탄은 상당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또 다른 다음과 같은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듣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요”(사무엘상 17:3-4)



그의 갑옷과 무기도 그의 체격처럼 놀라울 정도로 컸습니다. 그는 근 40여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였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삼상 17 : 10-11)

다윗이라는 이름의 양치기 소년이 등장한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는 거인의 거만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공포심을 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병졸인 형에게 다가 가서 무슨 일인지지를 물었습니다. 동생이 양을 버리고 왔다고 꾸짖자 동생 다윗은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삼상 17 : 29)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성인 지도자에게 한 청년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청소년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무런 응답을 듣지도 못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거나 내뱉는 대답을 듣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거짓된 이유로 길을 잃고 있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대관장단의 지시 아래 교회의 12세부터 18세에 이르는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자로서 나는 내 온 정성을 다해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입니다. 의로움을 지킬 이유입니다. 교회 내의 모든 청소년이 사탄과 그의 무리에 대항하여 전쟁을 선언할 때 한테 뭉쳐야 할 정당한 이유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듯이 모든 젊은이가 사탄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매우 영리합니다. 강력한 설득력도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이란 없다는 설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는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큰 대업이 맡겨져 있으며, 바로 그 대업이 모든 젊은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를 굳건히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 17 : 45)

이러한 전쟁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인류 역사상 오늘날의 청소년 세대보다 더 용감했던 세대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 세대의 정신이 바로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대에 나오도록 지금까지 보류되었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천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점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만사에 “상대가 되는 것이 있다”(니이 2 : 11 참조)는 것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으며 구세주는 선을, 사탄은 악을 무기로 갖고 있습니다. 구세주가 살아 계신 것처럼 사탄도 실존해 있습니다. 그는

잡고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늘이 다시 열려 있으며, 오늘날 지상에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나는 모든 청소년이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엡 6 : 11 참조)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타인에게 모범을 보이게 되며, 많은 사람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됩니다. 각자가 이렇게 할 때 큰 승리를 거둘 군대를 만들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구세주의 재림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구세주를 알아야 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14세의 어린 나이에 기도로

주님께 지식과 지혜를 간구하였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현으로 그에게 나타났읍니다. 그는 두 분을 보았으며, 한 분이 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2서 : 17) 이로써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기도와 연구를 통해 자신

만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그가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허용만 한다면 사탄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행동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탄이 이를 빼앗아 갈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사탄과 함께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악을 피해야 함은 물론 악의 탈을 쓴 일체의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살펴 봅시다. 외모는 어떻까요? 의로움의 대업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엔엘톤 태너 부대관장님이 하신 다음과 같은 현명한 권고에 따라야 하지 않았읍니까?

“단정함은 자신과 이웃과 창조주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며 본인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단정함이란 겹손, 우아, 예절을 동시에 나타내 주는 자세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원리에 일치되고 성령에 인도되어 모든 부모, 교사, 청소년이 복장, 두발, 개인의 외모의 특성을 토론하고, 자유의지로 책임을 받아들이고 권리를 택하게 하십시오.”(프렌드, 1971년 6월, 3페이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에 기초를 두면 정직, 성실, 근면, 도덕적인 순결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간음, 사통, 동성애, 낙태, 부정과 같은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들이실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해로운 습관성 약품, 술, 담배, 커피, 기타 유해 음식에 관한 한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첫째와 둘째되는 큰 계명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마태 복음 22 : 37-39)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게 되고”(롬 1 : 16 참조) “특이한 백성”(벧전 2 : 9 참조)으로 보일지라도 용감한자들 중에 헤아림을 받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를 붙잡고 싶으나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회개하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용서가 낳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고뇌와 가책과 당황과 두려움과 죄악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메마른 눈에 따뜻한 눈물이 고일 것이며 만족감에 찬 미소가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씻어 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읍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읍니까! 범범과 슬픔과 죄로 짐을 진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그를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의 어리석음과 과오를 회개할 필요가 있는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용서가 낳는 기적, 북크래프트사, 1969년 367-368 페이지)

우리가 해야 할 대업이 없겠읍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큰 대업이 맡겨져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청소년이 기를 굳게 잡고 부모나 감독이나 다른 성인 및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예로운 승리를 얻을 때까지 굳건히 어깨를 마주대고 행군해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을 준비시킬 수 있고, 요셉 스미스처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와 그의 아들은 각기 다른 인격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사렛 예수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대업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대업도 맡겨지지 않게 됩니다.

전쟁터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이와는 다릅니다. 전쟁터는 단 하나 밖에 없으며 그것은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개별적으로 공격이 오게 됩니다. 물론 그곳이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화평이 가져다 주는 축복

모든 사람이 일상 생활에서
화평케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프랭크린 디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보조



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900년 전 어느 유월절 축제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와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 : 27) 오늘날 이 세상은 갈등과 불화로 가득차 있어 화평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화평이 없이 진정한 행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화평을 찾으려나 어디에서 그것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사 9 : 6 참조)이라고 일컬어지며, 그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그 평화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

명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가정에 이러한 평화를 심어 주는 데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손자가 보낸 편지에 개종한 지 1개월 된 사람이 성찬식에서 들려 준 말씀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종한 지 한 달 밖에 안된 그 사람이 연단에 서서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였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얻는 가장 큰 기쁨은 복음이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수많은 개종자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복

음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 주었나를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장 훌륭한 메시지의 하나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메시지에는 풍요한 삶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 : 9)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무한히 많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과 친절을 보이고 질투와 시기를 없애으로써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간에 오해가 있을 때 우리는 양편이 이를 조정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갖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음으로써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마 7:1-2) 여러분은 남을 비판할 때 지금 내가 남을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가르치고 실천함으로써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 (마 18:22) 용서하라고 하신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용서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 죄를 잊는 일입니다. 어떤 점에서 볼 때 잊는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테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께서는 런던의 하이드 파크 예배당을 헌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복된 복음은 우리의 가정의 어린이가 보호되고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며...노인이 편히 쉬고,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는 안락한 휴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치 뉴스, 1961년 3월 11일, 15페이지)

어느 훌륭한 감독님이 청소년들을 그의 사무실에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모두들 좀 협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족 한 명이 가정의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은 모두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가족에게는 일체 이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해 보십시오. 모범을 보이십시오. 가족 중에서 다투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랑과 조화와 행복의 분위기를 만들어 그러한 과오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감독은 이렇게 말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이 화가 나고 가족들도 모두 화를 내면 우선 자신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나는 우리 와드에 속한 모든 가정이 맥케이 대관장님이 권고하신 것처럼 ‘지상의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말에 가서 다시 만나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들에게는 큰 목표가 되었으며, 그들은 모두 훌륭히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이 감독에게 보고할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생각조차 못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은 참으로 달랐습니다. 나는 우리가 갖는 갈등이나 소란은 그 대부분이 나와 내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이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항상 사소한 충돌이 있는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빠와 동생들과 한 달 동안 지내는 동안 그러한 문제가 사라졌으며 집안에는 전에 느끼지 못한 사랑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가정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맛보도록 저처럼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소녀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내가 이 실험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집안에는 협동과 사랑의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장 큰 원인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모범을 보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였으며, 자신에 대해서도 전에 느끼지 못한 좋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화평의 느낌이 나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의 다툼으로 가정이 파탄될 수 있습니다. 불화 속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자녀는 물론 자신의 행복까지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것처럼 갈망하는 평화와

안정을 여러분에게서 쫓아 버리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근심, 걱정, 의심 등에 싸여 평화를 막아 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를 먹어 감에 따라 그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를 두려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80의 고령에도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한 자매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화평과 평온의 빛이 그녀의 얼굴에서 빛났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필요로 하는 바를 주십니다”라고 말하는 그녀의 말대로 그녀가 필요로 하는 바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배울지니, 곧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교성 59:23)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다하고 그를 믿으며 이웃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그를 섬길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를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나는 내 자신의 생활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의 생활에서, 전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생활에서 이러한 사실을 보아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개인적인 평안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화평케 하는 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없다면 구세주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 5:9)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란 그들이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여 성령을 통해 간증을 받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짐작할 수도 없는” (교성 76:89 참조)

평화와 내심의 긴장에서 풀리는 안도감, 기쁨, 행복, 만족, 성장, 발전 등을 모두 누리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것이 사실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

으로 그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권세가 이 세상에 회복되었으며,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오늘날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인도하는 살아 계신 예언자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의 충만한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우리가 모두 그의 권고와 충고에 따를 수 있도록 용기와 판단력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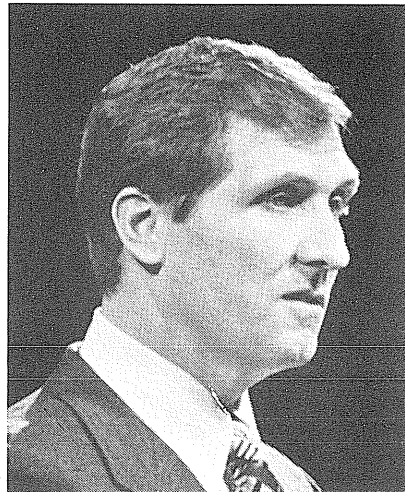
우리 모두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맡아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짐작할 수도 없는” (빌 4:7 참조) 화평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1974년 10월 5일 제144 반언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

우리는 의로움으로 일 관해야 합니다

복음은 끝까지 성실하게
건달 것을 요구합니다.

렉스 디 피네가 회장
철십인 제일 정원회



續 최근에 나는 가족과 함께 3년 동안 관리하던 버지니아 선교부를 떠나 고향에 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신앙과 부지런함을 보고 나는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사람에게 오는 큰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선교 사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 사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이러한 특권은 최근에 귀환한 한 선교사가 나에게 찾아와 자기의 고충을 털어 놓을 때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젊은이는 훌륭한

선교 사업을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경에서도 용기와 신앙을 잃지 않는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미묘한 반목이 있는 가정에서 그의 선교 사업에 대

한 열의와 정신을 지켜야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가족이 얼마나 훌륭하며 그가 선교사로 있는 동안 얼마나 잘 그를 지원하여 주었는지 말한 다음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피로움을 겪는 일이란 가족이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저도 사냥을 무척이나 좋아했었으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가족이 주일날에도 저를 데리고 사냥을 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주일날 사냥을 가고 싶지는 않으나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거든요. 좋은 충고를 바라겠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가족이 그가 잘못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에게 재차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사냥이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활동이었습니다.

이 선교사와 또 의로운 길을 계속 걸을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는 올리버 카우드리의 경험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올리버는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왕국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번역의 은사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많은 사람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후에 올리버가 번역을 하려 했으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번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계속하지 아니한 연고로 내가 네게서 이 특권을 거두어 갔느니라.”(교성 9:5)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버는 의로운 노력을 계속하지 못하여 주어진 은사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합당하게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 주는 주님의 권고는 “일을 시작했을 때와 같은 자세로 끝까지 계속하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힐라맨의 아들인 니파이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노력하고 의롭게 살았으나 백성들이 그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향에 다달았을 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 결

과로 오게 될 큰 축복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힘을 얻은 니파이는 그의 고향을 떠나 그가 복음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그의 노력을 다하려고 온 길을 되돌아 갔습니다. (히 10:2-12 참조)

이노스가 얻은 놀라운 경험도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부모의 가르침에 따를 때 오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노스는 그의 아버지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친이 의로운 분이였음을 아노니, 그의 언어로 나를 가르치며 주의 사랑과 훈계를 가르치셨으며...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깊이 스며들음을 느꼈고”(이노 1, 3절). 의로우신 부친의 끊임없는 가르침이 이노스로 하여금 영으로 굶주림을 느끼게 하여 그는 주님 앞에 나가 열심히 자신의 영혼을 위해 간구하였습니다.

이노스는 또한 의로움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밤이 되도록 소리를 높여 하늘에까지 들리도록 부르짖었더라”(이노 4절)고 말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열렬한 기도는 하늘로부터 응답되었습니다. “한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시기를, 이노스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복되리로다.”(이노 5절)

이노스는 의로우신 아버지의 가르침에 힘입어 스스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시작할 때처럼 그의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참고 견딘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신앙으로 꾸준히 바른 길을 걸

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1-32)

계속한다는 것은 전진해 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가 이 곧고 좁은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전능하신 권세로 너희를 구하시는 이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할진대,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히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니파이 1서 31:19-20)

의로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로움에 대항하는 반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결정을 내리는 데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힘이 밀어 닥치고,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이 버티고 있기도 합니다. 계속해 전진해 나가기 전에 극복해야 할 이기적인 동기와 세속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행

복에 이르는 길은 전진해 나가는 것 뿐입니다. 김블 대관장님께서서는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쌍의 자매 선교사가 어느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일 주일 동안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찾아 간 집에서 모두 거절당하고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어느 날 이들은 심신이 지쳐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냉대 속에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토론과 기도를 마치고 이들은 다음 날 다시 전처럼 노력하기로 마음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들은 다시 주님께 그 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 날 그들이 방문한 가정에서는 모두 그들의 메시지를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축복하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 가정과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가 담당한 가정을 7년 동안이나 열심히 방문하여 마침내 가장이 적극적으로 교회의 일에 참여하게 된 예도 있습니다.

어느 젊은 남편이 교회가 옳은지를 스스로 알아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6년 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개종한 아내와 자녀의 생활이 놀랍게도 변화된 모습을 눈여겨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문경을 구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도 얻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계속해서 읽어 갔습니다. 그는 읽어 가는 도중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들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근 몇새 저녁을 읽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이 경전에 담긴 진리를 알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저녁을 더 계속했을 때 마침내 깊은 영적인 경험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쇄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



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그는 경전의 인물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뜻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물문경의 진실됨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37년 동안 자녀에게 아버지를 존중하도록 가르쳐 온 훌륭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는 남편이 그의 신권을 존중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망이 이루어져 남편은 마침내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유타로 오는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성도들이 큰 시험이 닥쳐와도”(말일성도 찬송가 228장)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의로움으로 일관해 와서 큰 축

복을 받은 사람의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로운 길에서 이탈하여 옳지 못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의 축복이 거부된 사람의 예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의로움 가운데서 시작한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와 신앙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 의로움 속에서 계속 전진하라는 주님의 권고에 따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1974년 10월 6일 제144 반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

그리스도를 증거함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조셉 엔더슨 장로
십이사도 보조



영 오늘날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세상의 구속주요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영으로는 장자요 육신으로는 독생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일입니다. 그가 세상에 와서 육신을 입고 아담과 이브가 깨뜨린 율법을 수정하였으며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되돌아 가게 계획을 주신 것이 창세 이전에 제정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1:1-2) 이것은 위대하신 여호와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의 영의 자녀 중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는 전세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

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아버지를 알고 있듯이 우리 영의 아버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형인 여호와를 알고 있으며 아침의 아들인 루시퍼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의 기억이나 눈으로 보았던 상황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탈되어 이제는 오직 신앙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찬송가로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몸 여기에 놓은
현명한 목적아나이다
출생과 친구 모든 전생 일
완전히 잊었을지라도

찬송가 118장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온갖 목표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전세의 천국 회의에서 제정된 영예로운 계획입니다.

전세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창세와 지상의 주민에 관한 내용을 다룬 천국 회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기심이 내포되지 않은 계획을 내셨읍니다. 그것은 다른 세계에서도 사용되었읍니다. 여호와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옵소서.” (모세서 4:2)

그러나 루시퍼는 우리가 모두 강제로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계획을 수정할 것을 제의했읍니다. 이것은 자유의지에 반하는 제의였읍니다. 그의 제의는 야심에 찬 것이었으며, 이에 관련된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영광을 루시퍼에게 돌리게 한 계획이었읍니다. 경전은 그가 한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있어 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겠오며, 내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예를 내게 주소서.” (모세서 4:1) 이것은 자유의지의 권리와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빼앗는 계획이었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하여금 성실과 노력으로 그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한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었읍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주제넘은 제의였읍니다.

우리는 전세의 영의 세계에서 영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으

며 순종한 정도와 의로움의 정도가 각기 달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할 때 자기의 자유의지를 행사하였으나 그 반역에 대한 죄값을 치루었어야 했으며, 그를 따랐던 추종자들도 지금까지 죄값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을 특권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그들에게 큰 저주와 실의를 안겨 주었읍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밑에 빠치우리로다”(이사야 14:12-15)

여호와를 따랐던 영들이 육신을 입도록 지상에 보내졌을 때 그들은 전과는 다른 큰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입을 특권을 받은 영들은 성실함에 있어서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증거하도록”(아브라함서 3:25 참조) 이 세상의 경험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진 영들이었읍니다. 생명과 구원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되돌아 갈 수 있으며 성실한 자에게 주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전세에서부터 영의 자녀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몇몇 영들은 루시퍼의 간교나 유혹에 굴

하게 되고 많은 무리가 길에서 이탈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자유의지로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 하나님의 영의 자녀에게 육신을 입힐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읍니다. 따라서 구속주와 구세주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법으로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을 그의 후손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속할 속죄가 필요하였읍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그가 율법을 어겼으므로 범법임에는 틀림없으나 이것은 인간에게 지상 생활의 문을 열어 주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자신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불 때 축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담과 이브의 죄를 대속하는 큰 책임을 짊어지게 하셔서 모든 인류가 구원과 승영에 이르는 데 필수 요건이 되는 계명을 지킬 때 각 개인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절정의 때에 예수가 지상에 계셨으나 그를 천지의 창조주요 인류의 구속주로 알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읍니다. 그의 제자까지도 그의 사명을 분명히 알지 못했읍니다. 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마련해 주었고, 부활한 몸으로 무덤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으나 그의 제자들은 이것을 험사리 이해하지 못하였읍니다.

우리는 신약 전서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몇몇 사람의 이야기에만

이러한 사실을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다른 기록과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물론경이 있으며 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스라엘의 잔류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크신 업적을 알려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버림을 받지 않게 하리라고 하신 주의 언약을 알게 하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느니라”(물론경 표제지)

이 기록에는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후 미대륙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미대륙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과 비슷한 생명과 구원의 계획과 복음을 가르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론경에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을 때와 세상을 떠나실 때 미대륙에 있었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는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팔을 벌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 잔을 마시며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태초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였느니라”(니파이삼서 11:10-11)

교회는 독생자와 그의 사명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값진 진주라는 경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세

주의 탄생과 죽음, 그의 사명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성경, 물론경, 값진 진주에 담긴 아브라함과 에녹과 모세에게 준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경전의 시대에 여러 번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성신의 속삭임과 암시로 이와 같은 시현과 충만한 복음의 회복에 관한 사실이 진실되다는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정의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냈던 권세와 권능이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며, 이제 이러한 사실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덤에서 일어나셨으며, 부활하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그를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돌아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 구세주입니다. 그는 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이며 육신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맏형입니다. 그는 신회의 두 번째 구성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따른 천지의 창조주였습니다. 그는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마 5:14 참조)입니다. 그는 “세상의 빛”(요 14:6 참조)입니다. 그는 우리 구원의 장본인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바치도록 창세 이전에 선택된 양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교성 88:104 참조)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준 계명과 삶과 구원의 계획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첫 열매”(교성 88:98 참조)가 되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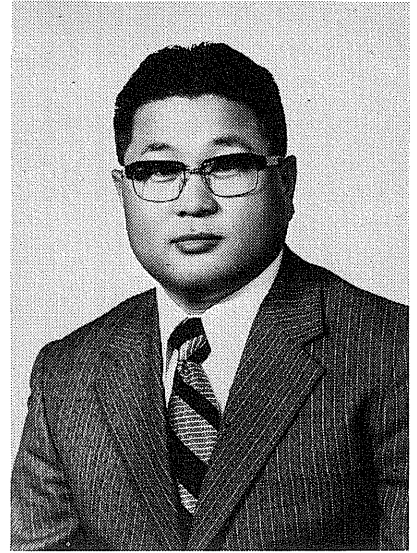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이 그의 사업이요 영광입니다. (모세서 1:39 참조)

이러한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사업입니다. 구세주께서 창세 이전에 천국 회의에서 받아들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요 영광입니다.

예언자의 말씀대로 그는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그는 큰 권세와 영광을 지니고 오셔서 평화와 의로움으로 천 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임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나는 구세주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신앙과 성실함으로 간증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75년 한국대회를 계기로 :



한국 서울 선교부
부산교부장
박재암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된 복음이 들어온지 벌써 25년이 되고, 선교사가 들어와 전도하기 시작한 지가 18년, 한국에 선교부가 독립된 지가 13년이 되며, 이 땅의 중심부 서울에 시온의 스테이크(교구)가 이루어진 일이 3년 째가 되며 이제 또한 새로운 한국 부산 선교부가 금년 7월 1일 부터 발족하게 되었으니, 주님의 뜻이 우리 배달의 겨레와 함께하고 있음이 이 백성들의 축복이요 이곳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소망에 승영의 앞날을 기약하는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성도들의 회원수가 10,000 명이 되고 장로 이상의 신권 소유자가 500 명이 넘으며 미국에 가서 신권의 식을 통한 가족인봉을 한 수만도 15쌍이 넘으며, 이미 신전을 방문하고 대리 의식을 한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50명 이상이며 한국에서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봉사한 형제 자매의 수만 60명이나 되며 외국선교사(주로 미국인)가 이곳에 와서 선교의무를 2년 이상 행한 자가 연 600명 이상의 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이 나라의 백성이 구원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도록 그 개인이나 가족 단위에 참 소망의 내일을 알도록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선교 사업을 할 때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최근 살아계신 예언자께서는 여러차례의 말씀에서 예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달리기를 하는 주자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가일층 힘을 내어 뛰라든지” “현재에 되어진 사실에 집착하며 만족하지 말고, 보다 큰 상상의 세계를 가능한 현실로 하지 못할리가 있겠는가?” 하는 등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경륜에 찬 때의 마지막 순간을 힘내어 장식하도록 승리의 찬가를 소리 높여 불러야 하겠습니다.

올 여름 8월 15, 16, 17 일, 75년 한국대회를 맞이하여 서울 스테이크, 부산 지방부, 대구, 호남, 인천, 대전 지방부에서 적극적으로, 비활동화된 잃었던 성도들을 다시 불러 모으며 내 이웃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같은 기쁨의 복음 가운데서 축복을 받도록 살아계신 예언자와 기타 총관리 역원 10여명을 모신 가운데 결의를 다시 다짐하는 한국인의 신앙을 나타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75년 한국 대회는 한국 선교사상 처음이요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축복의 모임이 될것이요.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줄압니다.

오늘날 서울 주변에는 많은 종교적인 회합이 많은 군중을 동원하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난 이런 군중의 모임과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로의 선택된 모임이기에 우리는 꼭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이웃을 모셔야 합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앞날의 축복된 목표를 향하여 함께 힘차게 걸어야 합니다. 암담이 어린 병아리를 가슴에 품듯 회복된 복음 가운데 선택된 말일의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본 대회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지상에 한분밖에 없는 예언자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대회에 많은 회원이 보다 활동화 되고 많은 구도자가 회원이되며 많은 친구들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전리와 구원의 교회임을 꼭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금식 그리고 계속적인 가정 복음 교육에 결실을 맺어 심판의 마지막 날에 나의 의무를 다했다는 칭찬의 상을 받는 날을 위하여 신앙의 힘을 가일층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75년 한국대회를 계기로 보람된 말일성도의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위대함이라 (니파이삼서 23 : 1)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이사야 9: 6)

좋은 소식을 가져 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 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 7)

말일에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이사야 2: 2)

그러므로 모든 목사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사야 29: 11, 12)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사야 29: 14)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사야 11: 6)

